


T
370.1
091999
C.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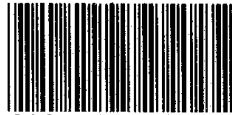
1994年度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

칼뱅 (Calvin)의 倫理思想에 관한 研究



 조선대학교



608112 1999-10-27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林 永 根

칼뱅(Calvin)의 倫理思想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Ethical Thought of Calvin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林 永 根

칼뱅(Calvin)의 倫理思想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全 禎 泰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 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林 永 根

林永根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文 現 相 印

審査委員 全 禎 泰 印

審査委員 金 淇 森 印

1995年 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文抄錄

칼뱅의 倫理思想에 관한 研究

林 永 根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指導教授 全 禎 泰

우리들이 살고 있는 社會는 후기 産業社會에 들어서면서 精神的인 혼돈속에 빠져들고 있다.

16세기 칼뱅이 살았던 당시에 도 時代的인 상황이 그러했으며 사람들은 生活속에서 信賴感을 잃은 채 精神的인 지주를 상실한 不安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世上을 향해 칼뱅은 聖經에 기초하여 무너져가는 社會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人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論文은 칼뱅의 倫理思想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가 옳고 그름의 根據를 어디에 두고 삶에 적용 하였는가? 人間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認定을 받을 수 있으며, 人間의 根本 問題로부터 시작하여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方法을 제시한 것을 研究範圍로 살펴보고자 한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를 적용시켰는데 그의 신학적 사고를 「기독교 강요」에 一目瞭然하게 정리하였다.

하나님께서 律法을 주신 目的은 世上에서는 자유하고 그리스도안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刑罰의 무서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며, 위로와 격려를 주는 能力이 있어 信者들에게 救援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속에는 自身과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성결과 도덕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 聖經은 罪人된 人間이 義人된 人間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속에서 거리낌 없는 良心으로 忠誠·奉仕하고 이웃과 和睦하며 하나님께 順從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리하여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이르게 한다.

주님께서서는 이 生活을 위해 十字架를 지도록 가르쳤는데 이는“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必須的 要件인 順從을 가르친 것이다.

칼뱅은 倫理의 原理로 人間은 하나님 안에 하나로서 人間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社會生活을 통하여 적용시켜 나가게 했다. 이는 墮落으로 인하여 毀損된 하나님의 形象을 다시 回復하여 本來의 삶, 즉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누리게 하였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認定하여 社會 안의 問題에도 지대한 關心을 두었다.

家庭倫理를 보면 家庭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保存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신 것으로 社會秩序의 基礎이며 이 秩序가 무너지면 2차적 社會가 세워질 수 없고 無秩序와 混亂, 腐敗와 墮落이 亂舞하게 된다. 家庭은 일부일처제의 연합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보금자리로 모든 社會秩序의 기초가 된다고 했다.

政治倫理를 보면 犯罪한 인류를 枹멸로부터 保護하며 秩序維持를 위해 하나님이 그 권세를 통치자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며 통치권자는 거룩한 직책에 봉사자로서 규모있게 行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人間을 사랑할 줄 아는 政治로 세워지기를 원했다.

經濟倫理를 보면 하나님은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가르치며 人間 모두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人間 社會를 保存키 위해 지혜롭게 處身하며

말은 재물을 공평의 원칙과 형제간 연합 원칙에 따라 使用해야 함을 밝혔다.

이 같이 칼벵은 倫理를 하나님, 人間, 社會의 관계속에 있다고 보았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것으로 보았다.

칼벵은 倫理의 모든 원리를 성경에서 찾았으며 하나님의 主權을 강조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提示하였다. 이러한 倫理觀속에서 自身の 思想을 심었으며 西歐의 文化와 文明을 꽃피우게 하는 기초석을 놓았고 世界의 精神的 秩序維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現代社會에 있어 마지막 남은 精神的 보루인 宗教가 무너지는 人間性을 다시 회복시키며 人間끼리의 信賴를 쌓고,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尊重하는 社會, 人間이면 누구나 마땅히 지켜 나가야 할 도리를 자진하여 실천하도록 하기에 앞장서야 하겠다.

目 次

I. 序 論	1
1. 問題 提起	1
2. 研究 範圍와 方法	3
II. 칼벵의 倫理 思想	4
1. 칼벵의 生涯와 業績(思想)	4
1) 生涯	4
2) 思想	8
2. 칼벵의 敎理의 原理	9
1)하나님의 말씀(律法)	10
2) 人間의 行爲(罪)	13
3. 칼벵의 倫理의 原理	14
1)그리스도인의 自由	16
2) 自己否定	21
3) 十字架를 지는 일	25

III. 칼벵의 生活 倫理의 실제 적용	31
1. 基督教人の 社會生活	31
1) 칼벵의 社會에 대한 견해	31
2) 家庭 倫理	35
2. 基督教人の 政治生活	37
1) 두 나라(靈的인 統治와 世上 統治)	38
2) 世上 政治(政治的 統治)	39
3) 하나님과 政治 關係	40
4) 法的 秩序	41
3. 基督教人の 經濟 倫理	44
1) 칼벵시대의 경제 상황	44
2) 돈	45
3) 勞動(職業)	48
4) 賃金	49
5) 高利貸金業과 私有財産	50
6) 富의 增殖과 消費文化	53
7) 가난한 者와 富者의 關係	54
IV. 結 論	56
參 考 文 獻	59
ABSTRACT	61

I. 序 論

1. 問題 提起

1) 研究의 必要性

人類 歷史에 있어서 人類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끼치고 있는 사람을 들라면 서슴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는데 반대할 사람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2,000년 전에 33세의 젊은 나이로 十字架에서 처형되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예수 이후 그의 追從者들은 예수의 思想을 후대에 傳受했고 그들은 그의 思想에 따라 이 世上의 삶을 勇氣있게 살았으며 文化를 꽃피우고 모든 삶의 이유를 제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幸福한 삶을 營爲하도록 도와 주었다.

예수의 思想에 입각하여 哲學을 정립한 사람들도 많고 科學을 발전시킨 人物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中世의 暗黑期를 마감하고 近代의 思考와 思想을 도입하여 現代가 있게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칼뱅이다.

칼뱅은 16세기의 사람으로 그가 살던 時代를 지배했던 로마교회의 精神을 로마교회의 經典인 聖經을 통해 改革하고, 그 聖經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根據와 理由를 제공하여 주었던 위대한 人物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로마교회로부터 異端者라는 烙印을 받아 生命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계속 聖經을 研究하여 基督敎會를 본래의 위치인 예수의 思想으로 돌려 놓는 일을 하였으며,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神觀때문에 오는 宗教의 抑壓가운데서 解放되는 기쁨을 누리

게 했다.

칼뱅의 이러한 改革運動이 비단 기독교회만의 일이 아닌 것은 그의 改革으로 말미암아 西洋의 모든 文明 活動들이 始作되었고 그의 精神에 입각하여 꽃피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칼뱅이 살았던 當時 時代的인 상황은 중세의 墮落한 로마교회와 司祭들, 농민들의 반란과 몰락의 기로에 선 기사들, 政治, 經濟的으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제후들로 인하여 로마제국은 쇠약해져 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生活속에는 信賴感과 精神의 支柱를 喪失한 불안한 平和가 維持되고 있었다.

이러한 世上을 향해 칼뱅은 聖經에 기초하여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고 무너져 가는 삶의 토대를 바로 세워 주었으며 제네바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人物이었다.

칼뱅 이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칼뱅에 대한 研究는 活潑하게 進行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칼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그에 神學에 대한 學問的인 면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의 倫理的인 면에 대해서는 별로 關心을 두지 않았다. 물론 칼뱅 자신도 자신의 倫理觀에 대해 체계적으로 論述한 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칼뱅의 倫理觀에 대해서 다시 研究하고자 하는 것은 후기 産業社會에 접어들면서 精神的 混沌을 맞고 있는 現代人들에게 必要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남겨둔 「기독교 강요」, 「성경 주석」, 「설교」이 외에 研究 發表된 수많은 문서를 통하여 칼뱅 자신의 倫理的인 면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2) 研究의 目的

이 研究를 始作하면서 칼뱅의 倫理觀의 기초를 살펴보자면 그는 예수님처럼 이론에 관심을 두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順從하며 살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生活에 關心을 두었다. 곧 그의 倫理는 絶對的이고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 말씀에 根本을 두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명료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聖經 이 외의 어떤 것에서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칼벵은 구약의 十誡命속에서 道德的인 生活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찾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의해 가르쳐진 '사랑'의 개념속에서 모든 分野에 걸친 실제적인 道德 問題를 다루었다. 그래서 그는 敎理와 倫理를 나누지 않고 兩者를 섞어서 취급하여 그의 교리가 곧 倫理이고 倫理가 곧 敎理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倫理思想은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고 學問的인 측면에서 研究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 研究 範圍와 方法

제 1장에서는 그의 生涯와 神學 思想을 통하여 倫理的 근거와 여기에 그의 學問을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실제적인 生活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제 2장에서는 그의 神學에서 하나님의 命命과 人間의 存在를 살펴보고 여기에 나타난 人間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인정을 받은 것인가를 생각코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칼벵의 倫理를 그리스도인의 영적생활과 육적생활 전반에 걸쳐 考察함으로써 그의 倫理思想의 原理的인 면에 관하여 전개하려고 한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칼벵의 生活觀을 살펴보겠다.

위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와 「주석」과 「설교문」을 1차적인 자료로 삼았으며 이 논문에 사용된 기독교 강요는 1974년에 김문제목사가 1559년판 라틴어 원본과, 1957년 프랑스 원본과 다수 역본을 기초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인용문의 각주는 권, 장, 항의 순으로 적었다. 예를 들어 기독교 강요 1권 3장 4항은 강요 1, 3, 4로 적었고 성경주석의 경우는 1980년 성서교재 간행사에서 번역한 것을 사용했으며 각주에서는 표기를 창세기 1장 1절은 창1:1로 적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칼벵에 대한 研究文獻들을 그 다음 자료로 삼았다.

II. 칼뱅의 倫理 思想

1. 칼뱅의 生涯와 業績(思想)

1) 生涯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에 걸쳐 敎會와 社會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出生하였다. 1483년에는 루터가 出生하였고, 1484년에는 쾰빙글리가 그리고 1491년에는 마르틴 부처가 出生하였다. 그리고 John Calvin이 1509년 7월10일 파리에서 북쪽 60마일 떨어진 노용(Noyon)시에서 태어나 14세까지 이곳에서 國民學校를 다녔다. 본래 그는 장코반(Jean Cauvin)으로 불리웠으나 그를 Calvin으로 부르게 된 것은 나전어화하여 Johannes Calvinus라 썼고 나중에 다시 고쳐서 Calvin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¹⁾

그는 부친 제랄드 칼뱅(Gerard Calvin)과 모친 즈엔 르 프랭(Jeanne Le Frane)의 4남 2녀 중 차남으로, 칼뱅은 태어나자마자 敎會의 품에 안겼으며 銳利한 知性을 가진 뛰어난 人物로 認定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주교의 비서로서 주교 관청을 위해 일했고 대성당 참사회의 대리인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世上을 떠났으며(1515) 새 어머니에 의해서 養育을 받았다.

이런 까닭에 칼뱅은 당시 주교의 친척인 드양제 집안의 貴公子들과 함께 敎育을 받기 始作했고 이곳에서 기초 敎育을 마친 후 1523년에 드양제 집안의 소년들과 함께 파리로 갔다.

1) 칼빈,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4권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서울: 기독교교문사, 1984), PP. 1104~1104 참조

14세 때 파리에서 파리대학 소속의 마르쉬 문과대학(College of La Marche)과 몽테큐 대학(College of Montaige)에서 人文科學을 工夫했다. 禁慾主義를 신조로 삼은 엄격한 교육목표를 가진 이 學校에서 칼빙은 철저한 宗教的인 訓練과 遵法精神을 體得하였으며 5년간의 大學生活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宗教改革의 새로운 사상에 접하게 되었다. 그중에 특히 자크 르 페브르(Jacques Le Fievre)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페브르는 改革家로서 칭의(Justification)의 敎理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철저히 주장하였다.²⁾

칼빙은 파리대학에서 5년간 訓練을 마친뒤 1528년 神學研究 자격시험을 통과했으나 父親의 권유로 오르제양대학에서 法學을 工夫하게 되었는데 이는 부와 명성을 얻게해 주는 확실한 보장도 있었고 또 父親에게 孝道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自身도 사제직에 대해서는 매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후 1531년 父親이 死亡하자 칼빙은 파리로 돌아가서 희랍어 工夫를 繼續하였으며 로마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의 클레멘티마(De clementia) “관용론”에 관해 쓴 주석을 친구인 성 엘로아의 클로드 아쁘(claude, abbé of st-Elloi)에게 헌정하였다.

그리고 초대 교부들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마틴 부처와 같은 당시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의 저작들도 研究했다. 특히 카톨릭 神學에 대한 칼빙의 지식 대부분은 두권의 기본적인 중세기 교과서인 페트루스롬바르루스의 「Sentences」(신학에 관한책)과 그라티아누스의 「De cretum」(교회법에 관한책)에서 얻은 것이었는데 바로 이 研究의 주된 결과로 그의 걸작인 「Institues of the Christian Religion」(기독교 강요)³⁾이 1536년 바젤에서 출판되었으며 출판 후 파리로 돌아가려 했으나 政治的 어려움 때문에 제네바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었다.⁴⁾

제네바는 人口 13,000명 가량의 도시로 일찍부터 政治的인 이유로 로마 카톨릭을 거부하였는데 카톨릭주의가 추방된 후 공백 기간에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의 사역에 의해 제네바 市民들의 革命思想이 개발되어졌다.⁵⁾

2) 이태인, 「칼빈의 개혁사상연구」(서울 : 성광문화사, 1992), P. 16.
 3) 초판은 모두 6장으로 되었는데 1장은 율법(10계명)해설, 2장은 사도신경, 3장은 주기도문, 4장은 성례식과 성찬식, 5장은 다른 성례 문제들, 6장은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다루었다.
 4) 김광식, 「칼빈의 윤리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1), P. 8.

그는 「기독교강요」의 저작으로 인해 프로테스탄트주의의 권위있는 대변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고 번역 증보하였으며 결정판인 라틴어 판을 1559년에 그리고 프랑스어 판은 1560년에 했다.

1536년 가을에는 聖經 강해자로서 活動을 始作했으며 칼뱅은 그곳에서 제네바 사람들을 宗教改革的 信仰으로 教育시키기 위하여 「Instruction in faith」을 1537년에 저작했다.

칼뱅은 1540년 그의 나이 31세 때 寡婦인 이 텔레트 드뷔르와 結婚했으나 結婚 生活은 순탄치 않았다.

한편 混亂의 와중에 놓인 제네바는 스트라스버그⁶⁾에 있는 칼뱅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요청에 의해 제네바에 돌아온 그는 改革教會를 세우기 위해 教會法規를 作成했으며 그는 거의 絶對的인 힘을 가지고 제네바시를 宗教改革的 實驗 장소로 活用했다. 이 法規는⁷⁾ 다소 수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제네바교회의 憲法 役割을 해오고 있다.

그는 自身の 敎理를 體系的으로 가르치려는 일을 로잔에서 시작했으며 거기에서 1537년 改革神學 敎育을 할 수 있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다. 이곳을 통하여 많은 개혁신학의 先驅者들에게 大學 水準의 敎育을 시켰다. 1559년 제네바 政府로부터 認定받은 아카데미를 創立했는데 이는 現在 제네바 大學校의 母體가 되었다.

칼뱅은 그의 生涯 말년에 영국, 스코틀랜드, 폴란드의 宗教改革을 위해 힘썼으며 무엇보다 그의 祖國인 프랑스의 改革主義的 宗教改革을 직접 도왔다.⁸⁾

이에 관해 Parker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Edward VI 통치 때 영국의 섭정이었던 더머세트의 공작에게 칼뱅이 보낸 편지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모든 便利를 제공할 것. ㉡모든 腐敗와 惡習을 일소할 것. ㉢강인한 訓練과 엄격한 치리를 통해 秩序를 確立할 것 등을 要求했다.

5) 이태언, 전계서, P. 16.

6) 이곳은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독일의 남서부 지방이었는데 프랑스의 종교강압 때문에 피난은 난민들이 몰려들어 종교망명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칼빈은 이곳에서 3년간 머무는 동안(1538~41) 예배를 비롯한 교회 의식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7) 이 법규는 제네바에 목회의 4직분 즉 가르치는 박사들, 설교하는 목사들, 징계하는 장로들, 자선하는 관리를 맡은 집사들 등을 세웠다

8) T. H. L, *parker portrait of calvin* (the westminster press, 1940), p. 143.

1541~1555에는 教會 組織 體系의 研究에 몰두했으며 그의 敎理的 권위는 도전을 받기도 했는데 그중에 제롬 볼세크와 미카엘 세르베우스의 도전은 만만치 않았다. 즉 볼세크는 전에 카톨릭 神學者였던 사람으로 1551년 칼빙의 예정론은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로 본다고 主張하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 칼빙을 논박하였고 볼세크는 제네바에서 추방 당했다. 세르베루스는 基督教의 中心敎理인 三位一體論을 공격하는 책을 출판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1555~1564년에 프로테스탄트주의를 보급시키려 했던 칼빙의 關心은 주로 故國인 프랑스로 향하였다. 칼빙은 급속히 성장하는 이 改革教會에 物質的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政治에 뛰어들었다. 이런 活動으로 인해 제네바는 改革과 프로테스탄트주의의 重要한 國際的 본부가 되었다.⁹⁾

칼빙은 1563년초까지 거의 정상적인 일을 하여 59권의 저작을 남겼으나 1564년 그의 건강은 크게 惡化되어(무엇보다 폐가 나뉘었다) 1564년 4월에 遺言을 썼고 그해 5월 27일 제네바에서 55세의 일기로 世上을 떠났다.

그의 시신은 중세기적 성자숭배의 可能性을 배제하기 위하여 共同墓地에 埋葬되었으며 遺言에 따라 墓碑를 세우지 않았다.

칼빙에 대한 評價는 極端的이다.¹⁰⁾ 反對派에 의해서는 無識한 者, 협잡꾼, 대유령으로 묘사되었고 禮讚論者에 의해서는 基督教을 굳건한 반석에 올려 놓은 人物로 묘사되었다.

칼빙은 27년동안 목사로 일했는데 이 일에 平生을 協力했던 파렐(Guillaume Farel)과 피에르 비레(Pierre Viret)가 있었으며, 제네바시의 指導者로서 貴族社會에도 많은 교분을 갖었다.

에밀 레오나르(Emille G. Leonard)는 칼빙을 가리켜 “제네바에서 새로운 인간형, 곧 改革派를 주도해 내었고 훗날 近代 文明이 될 것을 이곳에서 그려 냈다”고 評價하였다.

그는 宗教改革을 빙자한 과격한 行動들을 용납치 않았으며¹¹⁾ 반대파들이 갖은 중상모략으로 비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과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

9) 김광석, 전계서, P. 10.

10) 이태연, 전계서, P. 18.

11) R. 스토페르, 「인간 칼빈」(서울 : 정음출판사, 박건택역, 1983) PP. 87~ 88.

씀을 실천하면서 믿음의 동지들과 끝없는 友情을 나누며 苦難을 당한 兄弟들에게는 한없는 연민을 가지면서 아버지, 남편, 친구, 애인, 목회자로 살았던 것이다.

칼벵의 전기를 쓴 베자는 “16년 동안 칼벵의 생활모습을 보았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의 가장 아름다운 실례를 지켜보았습니다”라고 眞實하게 證言하며, “사람들은 그분의 모습을 비방하기는 쉬우나 따르기는 어려운 內容들입니다”라고 고백했고, 도너(Prof Dorner)도 칼벵을 知識과 性品에 있어 매우 위대했을 뿐만 아니라 社會生活에 자랑스러웠고 친구들에게는 동정과 신앙이 두터웠다고 기록했다.¹²⁾

2) 思想

① 神學的이다

칼벵은 倫理의 根本을 하나님의 말씀속에서 찾았으며 倫理와 敎理를 구별짓지 않고 關聯시켜 다루고 있다. 칼벵은 哲學者들의 倫理的 理論에 대해 공격하기를 “哲學者들이 특별히 道德的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다만 本性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 뿐이다”¹³⁾라고 했다. 곧 칼벵은 道德的 理論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順從할 것인가 하는 實際 生活 問題에 큰 關心을 두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倫理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에 바탕을 둔 倫理이다.¹⁴⁾

그런 칼벵은 힘이 있었고 옳고 그름에 분명했다. 이것은 칼벵이 하나님이 要求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칼벵의 十誡命에 대한 주석에서도 道德生活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고 있으며 칼벵의 倫理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倫理로서 神學的이라 하겠다.

② 聖經이 認識의 根據이다.

12) 이태언, 전계서, P. 20.

13) H.G. Stoker, *Calvin and Ethics in jehn calvin* Contem Porphet : edited by Jacob T. Hoogstra, P. 127

14) 기독교강요, Ⅲ권 6장 4항.

칼벵은 信仰과 行爲의 根據를 聖經에 두고¹⁵⁾ 聖經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絶對적이고 정확무모한 말씀이며 신적 권위로 주어진 책으로, 聖經의 기록자를 성령의 확실하고 틀림없는 공증인과 같은 자로 그들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한 것이다.¹⁶⁾

칼벵은 말하기를 “聖經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기인된 것이지 결코 사람(敎會)에 의해서 오는 것이 絶對로 아니다”라고 했다. 聖經의 권위가 敎會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오히려 敎會는 聖經의 基礎 위에 세워진 것이며 聖經은 하나님의 權威에 의해서 성령만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¹⁷⁾ 그리고 우리는 聖經을 生活의 안내자로 모든 生活의 規範이나 표준으로 여겨 여기에 의존하여 따라가야지 個人의 感情이나 理性의 判斷에 의해 道德的인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칼벵은 진정한 倫理는 그래서 聖經의 저자인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바로 따른 데서 나온 倫理이다.

③ 하나님 中心이다.

칼벵은 모든 思想을 하나님의 絶對 주권에 두었다.¹⁸⁾ 하나님은 創造主이시며 전지전능하신 統治者이시며 三位一體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만사는 그의 主權에 의해 결정된다. 人間의 모든 것, 즉 생각까지 하나님에 의해 주관된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은 全的으로 無條件的이라고 칼벵은 主張한다.

칼벵의 하나님 주권사상은 絶對的이며 包括的이어서 전 宇宙와 人間의 삶 전체에 적용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命令에 無條件的으로 服從해야 하며 人間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人間의 倫理의 기초를 하나님에게 둔다.

2. 칼벵의 敎理의 原理

15) 기독교강요, I권 6장 2항

16) 상계서, IV권 8장 9항.

17) 상계서, I권 7장 1항.

18) 상계서, I권 5장 6항-7항.

1)하나님의 말씀(律法)

칼벵은 律法이란 말을 道德律이나 十誡命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달해준 계명과 율례와 법도, 즉 宗教의 체계를 전부 포함시켜 使用했다.¹⁹⁾

그 律法은 구약 百姓을 그 律法에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所望을 갖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養育해가기 위해서이다.²⁰⁾

율법의 용도, 즉 道德律을 주신 理由로써 칼벵은 첫째, 하나님의 완전무결한 의를 알리며 거울에 자신을 비춰 아는 것 같이 자신이 불의한 것과 罪人됨을 드러내어 어찌할 수 없는 絶望을 절감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引導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律法을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여주시므로 지은 罪와 墮落으로 自身이 어찌할 수 없는 缺點, 즉 처절함과 저주받은 存在요, 刑罰을 면치 못할 存在임을 확연히 보게하여 自身을 信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하도록 한다.²¹⁾

둘째 용도는 刑罰의 무서움을 통하여 犯罪 行爲를 抑制하게 함인데 이는 불신자와 아직 부름을 받지 않은 자에게까지 適用되어 社會를 保存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억제를 한 것은 自身이 感動 感化를 받았다든지 마음에 어떤 影響을 받아서가 아니고 刑罰에 대한 恐怖心이나 羞恥心 때문이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情欲으로 靈魂의 하나님에 대한 망각과 멸시 가운데 빠져 들어갈 위험이 있기에 마지못해 참고 견디게 한 '強要에 의한 義'는 人間社會를 위해서 必要한 것이다.²²⁾ 이 恐怖는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정절하고 純潔한 恐怖가 아니고 그들의 能力에 따라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恐怖를 말한다.

세째 용도는 가장 중요한 용도로서 믿는 信者들의 有益을 위한 것으로 두 가지 有益을 얻게 된다.

① '順從'인데 주님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確實히 배워 그것을 自己에게 適用시켜

19) 상계서, Ⅱ권 7장 항1.

20) 상계서, Ⅱ권 7장 서론.

21) 상계서, Ⅱ권 7장 6항. 시19:11, 12, 롬3:20; 7:7, 9, 13.

22) 상계서, Ⅱ권 7장 10항.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마치 어떤 몸종이 主人에게 稱讚을 듣기 위해서 熱과 誠을 다하며 自身은 싫고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主人이 좋아하고 願하는 것을 行하는 것과 같다.

② ‘권면’으로 律法을 자주 묵상함으로써 服從하도록 자극을 받아 犯罪의 길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有益이 되며 의와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²³⁾

律法은 성도들로 하여금 게으르고 태만한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못하게 하는 가시와 같은 役割을 하여 온전히 의와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시19:7~8에 보면 “여호와의 律法은 완전하여 靈魂을 소생케 하고……여호와의 敎訓은 正直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純潔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고 하였다.

律法의 폐기에 대하여 칼벵은 道德的 律法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저주가 폐기된 것인데 이는 律法의 效用性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律法은 信者들을 위로 격려해 주는 能力이 있으며 良心을 저주로써 묶는 것이 아니며 놀라게 하거나 혼란케 함으로써 정죄하고 파멸케 하려는 것이 아니다.²⁴⁾

無律法主義者처럼 律法을 더 이상 必要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誤謬도 범해서는 안된다. 예수님께서도 “律法을 폐하러 온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또 “권세가 없어지기 전에는 律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²⁵⁾고 하였는데 여기서 律法을 遵守하는 일을 하나도 없애지 않고 있음을 확증하신 것이다. 지금도 律法의 權威는 損傷되지 않고 성도들로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尊敬과 服從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폐기 된 것은 意識的인 行爲, 그 용도(용법)에 있어서이며 意識의 神聖은 조금도 毀損된 것이 아니며 律法은 사람들로 하여금 罪惡의 자리에서 떠나 眞理에 확실히 거하여 생명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生活에 있어 따라야 할 두 가지 義務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義務)이고, 둘째는 人間에 대한 사랑(義務)을 가르친다.

23) 상계서, II권 7장 6항-12항. 골1:12-14, 롬7:22.

24) 상계서, II권 7장 14항. 롬7:6.

25) 성경, 마5:17, 18.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로 구분하셨는데 첫째는 마음과 뜻과 生命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하라는 것이다.²⁶⁾

결국 그리스도인을 자기보다 이웃을 그리고 이웃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⁷⁾ 둘째 비석의 말씀은 첫째 것의 기초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人間의 社會生活에 있어 合當한 處身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담겨있다.²⁸⁾ 사람에게 正直하고 被害를 끼치지 않으며 도적질을 안한다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예배와 경건이 行해지지 않으면 헛 것이다.

칼벵은 도리어 하나님의 榮光을 빼앗으며 그의 尊嚴하심을 거스림은 우리의 이웃을 침해함보다 더욱 흉악한 것이다²⁹⁾고 했다. 사람의 第一되는 目的은 하나님을 榮華롭게 함이요 하나님을 榮華롭게 함은 자기부정 없이는 온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외식에 지나지 않는다.³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은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表現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證據이다.³¹⁾

칼벵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原理를 보면 제1原理는 靈的이고 전면적이다.³²⁾ 人間이 肉體와 靈魂으로 지어진 것처럼 生活에 있어서도 外的인 德行과 內的이고 心靈的인 의를 도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外的인 모양보다 心靈의 순결에 關心이 더 있어 율법은 우리 靈魂, 精神 및 意志의 순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肉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靈 외에는 아무 것도 맛보지 않는 천사와 같은 純潔性을 요구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견해에 대해 가장 위태로운 잘못이라고 책망하여 말씀하셨다.³³⁾ 여기서 복음적 율법의 완성은 옛 율법의 완성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³⁴⁾

제2원리는 하나님의 命令과 禁令 안에는 언제나 그 말이 표현한 그 이상의 것을 내포한다는 것이다.³⁵⁾ 그는 말하기를 禁令 안에는 命令이 포함되고 命令 안에는 禁令이 포함

26) 전계서, Ⅱ권 8장 11항.

27) 설교, 욥1:1.

28) 전계서, Ⅱ권 8장 11항.

29) 설교, 신7:22~26, 욥34:4~10.

30) 주석, 갈5:14.

31) 설교, 신5:16.

32) 기독교강요, Ⅱ권 8장 6항.

33) 마5:28; 5:21, 22, 28, 43, 요일3:15.

34) 기독교강요, Ⅱ권 8장 7항.

35) 상계서, Ⅱ권 8장 8항.

되었다는 것이다.³⁶⁾ 만일 우리가 이런 점을 잘 헤아려 말씀을 해석한다면 律法 속에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께 대한 성결과 道德生活에 필요한 모든 것이 包含됨을 알게 될 것이다.

칼벵에게 있어서 완전이란 말은 德行의 최고를 행함으로 神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意味한 것보다 온전한 마음과 정직과 성실함으로 행함을 意味한다. 人間의 자력으로는 계명을 온전히 준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聖靈의 도우심으로만이 可能하다. 聖靈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되 自身을 죽이고 온전히 헌신케 하는 일을 돕는다.

2) 人間의 行爲(罪)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고상한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으며 인간의 지혜와 理性과 判斷力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기에 충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永遠한 生命에 이르는 삶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의 墮落으로 말미암아 모든 人類는 罪人이 되어 버렸다. 즉 인간은 본질상(by nature) 진노의 자식(에베소서 2장 3절)이 되어버린 것이다.

무서운 罪의 근원인 不信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요. 하나님은 命令에 自發的 順從을 원하셨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所有에 自足하여 악한 慾望에 理想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데 있었다.³⁷⁾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는데 이는 비단 사탄의 囀惑에 빠진 때문 만이 아니고 진리를 알보고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 때문이다. 背信이 墮落하게 했고 不信은 야욕과 교만을 일으켜 背恩忘德과 合勢하였던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선물을 경홀히 여긴 것이며 그로 인하여 파멸에 이른 것이다.

이 파멸은 우리 자신의 죄악성에서 오는 것이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다³⁸⁾고 하며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전가를 부정했다.

칼벵은 “죄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이며 驕慢은 모든 惡의 시작이다”³⁹⁾고

36) 상계서, Ⅱ권 8장 9항-10항.

37) 상계서, Ⅱ권 1장 4항.

38) 상계서, Ⅱ권 1장 10항.

39) 상계서, Ⅱ권 1장 4항.

했고 人間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어진 것”⁴⁰⁾이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해서 人間이 하나님과 同等한 存在가 아니고 무디어진 心靈으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된 것 뿐이다.

칼벵은 아담의 犯罪에 대해 無意識 가운데서의 犯罪로 보지않고 意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이며 이런 人間의 罪는 일부분이 아닌 전적인 범죄라는 것이다. 그래서 人間의 性品 속에는 본래적인 의로운 性品은 조금도 없다.⁴¹⁾

원죄는 전적인 墮落을 가르치며 이 墮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화가 깨진 상태를 말하며 人間 自體가 罪人이라는 것이다. 칼벵은 말하기를 人間은 罪惡을 행하는 일밖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바로 이것이 아담이 범한 決定的인 죄, 곧 原罪이다.

罪人된 人間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眞理는 喪失되었으며 무지와 연약만이 있을뿐이며 罪 이외에 남은 부분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⁴²⁾

罪의 값은 死亡(로마서6장23절,야고보서1장15절)이라고 정죄한 것처럼 罪人된 人間에게는 비참과 절망 뿐으로써 암흑 속에서 허덕이며 죄짓지 않을 수 없는 意志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墮落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人間은 자신의 힘으로는 救援을 소유할 수 없고⁴³⁾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하나님 自身이 願하는 뜻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이를 은혜라 한다. 곧 은혜의 選擇없이는 새롭게 변화하는 것도 不可能하다.

3. 칼벵의 倫理의 原理

우리가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음과 동시에 그의 은총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成長해 간다. 이것을 神學的인 用語로 의인이라 하며 성화라고 부른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⁴⁴⁾ 왜냐

40) 상계서, II권 2장 4항.

41) 상계서, II권 1장 8항.

42) 상계서, II권 5장 9항.

43) 상계서, II권 3장 13항.

하면 의인과 성화가 분리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統一이 깨어지기 때문이다.⁴⁵⁾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의인과 성화의 作用이 必要한 것이다. 칼벵은 이를 그리스도인의 生活 즉 倫理의 原理로 의인의 기초 위에 있는 성화의 영역을 말한다.⁴⁶⁾

칼벵은 그리스도인의 生活倫理를 聖經에서 찾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2절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標準으로 삼고 있다.⁴⁷⁾

칼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倫理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聖經을 상고해야 하며⁴⁸⁾ 聖經은 우리 生活의 原理요 하나님께 속해야 할 것을 命令하며 창조주의 참 根源과 人間의 墮落을 가르치며 우리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回復할 수 있는 새로남의 원동력을 담고 있으며 이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模範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 模範을 생활속에서 그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行動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⁴⁹⁾

칼벵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和睦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고 命令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든 조건을 전제로 하여 자녀로 인쳐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지 않으며 전념하지 않으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拒逆하는 자가 되며 대적자가 된 것이고 背恩忘德한 자가 된 것이다.

아들로 삼으셨으니 아들다워야 하고⁵⁰⁾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다시 더럽히지 말아야 하며⁵¹⁾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삼가 조심해야 하며⁵²⁾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올라가셨으니 우리 또한 땅에 愛着을 버리고 전심으로 위에 것을 사모해야 하며⁵³⁾ 聖靈의 전으로 삼으셨으니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며⁵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천상의

45) 상계서, Ⅲ권 16장 1항.

46) 박봉량, 「칼빈신학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신학연구 제25집, 1983), P. 26.

47) 전계서, Ⅲ권 6장 2항, 뱀전1:15~16 주석.

48) 전계서, Ⅲ권 6장 1항.

49) 상계서, Ⅲ권 6장 3항.

50) 엡5:1, 요일3:1 주석.

51) 엡5:23~33 주석.

52) 고전6:15 주석.

53) 골3:1 주석.

54) 고전3:16 주석.

榮光을 누릴 때까지 힘써 정절을 지켜야 할 것이다.⁵⁵⁾

그러므로 누구든지 “誘惑의 慾心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⁵⁶⁾ 안된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 아니면 바로 배웠다고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없다.⁵⁷⁾

칼벵은 그리스도인들이 言辯이 뛰어나서 복음에 대해 유창하게 말한다해도 그 복음의 지식은 거짓이며 불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警告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의 敎訓에 있지 않고 生活의 敎訓에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학과에 과목과 같이 理解하거나 記憶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靈魂 자체를 사로잡고 마음속까지 그 복음으로 인해 安定을 回復할 때에만 所有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模倣(Imitatio christi)⁵⁸⁾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전생애를 통하여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벵은 그리스도의 模倣에 있어 공적요구나 律法的인 要求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自由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⁵⁹⁾ 그리스도의 모방은 이 땅에서는 繼續되어야 하며 죽음 앞에까지 그리고 죽음에서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⁶⁰⁾ 그렇기 위해서 칼벵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부정⁶¹⁾과 自己 十字架를 지는 것⁶²⁾이라고 했다.

1) 그리스도인의 自由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 안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自由는 칭의,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부르는 은총

54) 고전3:16 주석.

55) 전계서, III권 6장 3항.

56) 성경, 엡4:22, 24.

57) 기독교강요, III권 6장 4항.

58) 상계서, III권 6장 5항.

59) 박봉량, 전계서. 21.

60) 기독교강요, III권 3장 9항.

61) 상계서, III권 3장 7항.

62) 상계서, 8, 서론.

에 따르는 것인데 칭의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유를 핑계로 하나님께 대한 服從마저 버리고 모든 節制와 秩序와 分別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 바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일 자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복음 진리, 靈魂의 內的 平安 어느 하나도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 했다.⁶³⁾

그럼 칼뱅이 말하는 基督教인의 자유는 무엇인가? 그의 의하면 基督敎의 자유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1) 律法으로부터의 자유

신자들의 良心은 하나님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確信을 구하는데 있어 일체의 「律法의 의」를 잊어버리고 律法을 넘어서 더욱 전진해야 한다. 理由인즉 律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칭의를 논할 때 律法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慈悲와 公휼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⁶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의롭다고 認定을 받게 되는 것인가”이다. 여기에 良心에 確信을 얻고자 한다면 율법은 신자들로 하여금 善을 행하도록 권면하며 義務感을 상기시켜 주고 同時에 성결과 결백을 위한 열심을 불러 일으켜 준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生活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기에 경건의 실천이 필요하다.⁶⁵⁾ 律法에 매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律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⁶⁶⁾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律法 全體를

63) 상계서, Ⅲ권 19장 1항.

64) 상계서, Ⅲ권 19장 2항.

65) 주석, 살전4:7, 엡1:4.

66) 상계서, 갈3:13.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律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⁶⁷⁾라고 하였다. 同時에 바울은 모든 人類를 덮고 있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저들이 그리스도의 十字架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분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고 가르친다.⁶⁸⁾

(2) 良心의 自由

律法の 멍에로부터 해방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順從한다는 이 말은 良心이 律法을 강요해서 律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律法の 良心을 벗은 良心이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이다. 良心의 지배하에서는 하나님께 眞心으로 順從을 생각할 수 없다.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性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⁶⁹⁾고 가르치는데 이 일을 하려면 우리의 靈魂이 우선 일체의 다른 感情과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心靈은 일체의 慾望을 정확해 버리고 우리 힘을 한 곳에 총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肉身을 입고 있는한 律法을 이행한다는 것을 不可能한 일이며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⁷⁰⁾ 律法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모든 行爲는 律法の 저주 아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律法の 멍에에 매인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일을 하도록 명령받은 종과 같다.

좋은 명령받은 일을 정확하게 완수해야 주인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은 일이 미숙하고 흠이 있어도 그 마음에 順從코자 함을 보시고 받아 주신다는 것이다. “사람이 自己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⁷¹⁾는 말씀의 뜻이 行爲를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靈魂을 더 중히 여기신 것이다.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이다. 律法에 매였기에 律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良心의 自由를 주셨기에 良心에 따라 律法을 지

67) 상계서, 갈5:1~4.

68) 전계서, III권 19장 3항.

69) 성경, 신6:5.

70) 전계서, III권 19장 4항.

71) 성경, 말3:17.

켜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行爲가 律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存在일지라도 律法을 지키려는 熱意와 誠實함이 더 重하게 요구된다.

(3) 外的인 것으로부터의 自由

善하지도 惡하지도 앎는 外的인 것에 대하여 구애받지 앎는 自由이다. 自由에 관한 지식을 갖지 못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참 平安을 얻을 수 없다. “疑心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⁷²⁾고 바울은 말했다. 그리스도인의 自由의 法則에 대해 바울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⁷³⁾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런 自由의 原則이 우리의 精神에서 確立되면 모든 外적인 일에는 우리의 自由에 속한 것이다.⁷⁴⁾

基督敎的 自由는 모든 부분에 있어 靈的임을 留意하지 앎면 안된다. 너무 慾心을 가지고 이 자유를 탐식이나 奢侈에 惡用해서는 안되며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나 惡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에 쓰여서도 안된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自由를 純粹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使用함에 있어 내 主張에 따라 나를 위해 使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聖靈님, 創造主 하나님의 榮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각자는 自己 身分에 알맞게 또 素朴하고 적당하게 하며 豐盛하게 살되 우리로 하여금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 人間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⁷⁵⁾

그리스도인의 自由의 法則은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 自足하기를 배웠는데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豊富와 窮乏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⁷⁶⁾는 法則을 익혀야 할 것이다.⁷⁷⁾ 또한 약한 兄弟들을 생각

72) 성경, 롬14:23.

73) 성경, 롬14:14.

74) 기독교강요, Ⅲ권 19장 8항. 참조, Ⅲ권 10장 4항.

75) 상계서, Ⅲ권 19장 9항.

76) 성경, 빌2:11, 12.

77) 기독교강요, Ⅲ권 19장 9항.

하여 “그런즉 너희 自由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⁷⁸⁾, “너희가 自由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自由로 肉體의 機會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⁷⁹⁾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自由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 사람과도 和睦되게 함에 있다는 것이다.⁸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自由를 어떻게 使用할 것인가 칼벵은 이웃의 약한 자를 위해 自由를 使用해야 하는데 이웃의 건덕을 위하여 힘쓰고 사랑의 義務 안에서 使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自由는 사랑에 從屬되어야 하며 사랑 그 자체로 信仰의 준수 아래 있어야 한다. 곧 우리의 이웃 때문에 하나님을 損傷(실족)케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⁸¹⁾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유롭다 할지라도 육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외부적인 통치에 관해서 인간 사회의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⁸²⁾

그럼 良心이란 무엇인가? 自己와 結合되는 제2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을 許諾하지 않고 審判者의 법정 앞에 관한 감각을 갖게 되는 경우 그 감각을 양심이라고 한다. 이유인즉 良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中間 手段으로써 罪를 자신 속에 감춰두는 것을 容納치 않고 드러내어 납득(시인)하도록 한다. 또한 베드로도 “善한 良心이 하나님을 향한 應答”⁸³⁾이라고 부른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얻은 靈魂의 平安과 같은 말이다.

또 行爲가 人間의 肉體를 관여하는 것처럼 良心도 하나님에 관한 만큼 善한 良心은 마음의 내적 순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律法의 完遂는 清潔한 良心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⁸⁴⁾이라고 했다.

78) 성경, 고전8:9.

79) 성경, 갈5:13.

80) 기독교강요, Ⅲ권 19장 11항.

81) 상계서, Ⅲ권 19장 13항.

82) 상계서, Ⅲ권 19장 15항.

83) 성경, 벧전3:21.

84) 성경, 딤후1:5.

칼벵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自由란 단순히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秩序는 破壞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自由를 가지고 하나님께 忠誠을 85)다하며 자원하는 順從으로 이웃과 和睦하며 奉仕의 生活을 영위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2) 自己否定

自己否定⁸⁶⁾을 칼벵은 聖經을 통해서 立證하고 있는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⁸⁷⁾는 주 도적 원리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리진 바 되었으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理性이나 내 뜻을 따라서 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한다⁸⁸⁾는 自己否定이다.

(1) 하나님과의 關係에서 自己否定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로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榮光을 위한 것 외에는 일체 다른 생각이나 말, 행동을 하지 않도록해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면(고전 6장19절) 우리의 生活의 모든 行動을 止揚할 것이다.

自身の 뜻에 따라서는 아무 것도 하지않고 하나님의 榮光을 위해 한다는 것, 이것이 十字架를 지는 일로써 自己否定이 없으면 不可能하다. 즉 하나님께 대한 자기부정은 절대 순복에 있다.

現世의 平安이나 快樂을 追求함에 있어 自身과 自身の 모든 所有를 주님의 뜻에 내 맡기고 우리 마음의 所願을 그 안에 맡겨 주님께 從屬되도록 하라는 것이다.⁸⁹⁾

모든 哲學은 理性을 人間의 支配者로 생활과 지혜와 행실에 유일한 指導原理로 尊崇하

85) 기독교강요, Ⅲ권 19장.

86) 상계서, Ⅲ권 7장, 서론.

87) 성경, 롬12:1.

88) 기독교강요, Ⅲ권 7장 1항.

89) 상계서, Ⅲ권 7장 8항.

나 基督教 哲學은 理性을 성령에게 양보하고 순복케하여 人間 自己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 청종할 것을 가르친다.⁹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自身の 것을 追求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영광이 되는 일을 증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을 거의 잊어버리고 모든 利己的인 面을 단호히 뒤로 돌리고 우리의 熱心을 하나님을 위해 忠誠되이 바친다면 전진이 될 것이다.⁹¹⁾

해야 할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배움과 동시에 헛된 생각을 제하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自己否定”으로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른 순간에 自己否定을 명하셨다.⁹²⁾ 驕慢, 倨慢, 허영됨, 貪慾, 肉慾, 奢侈, 享樂 그 외 자기 사랑에서 생긴 각 가지 다른 죄악도 自己否定이 없이는 물리칠 수 없다. 그래서 自己否定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박한 자로 돌변하게 되며 최소한의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며 혹시 어떤 미덕이 있다손 치더라도 稱讚을 얻고자 하는 사악한 名譽慾에 의해 消滅되고 만다는 것이다.⁹³⁾

그리스도인의 취할 길은 주께서 주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받지 않아야 한다. 혹 일이 바라는대로 되지 않더라도 초조하거나 惡한 術策을 쓰지 않으며 일이 잘 될지라도 자신의 공로나 노력등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여기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다.

칼뱅은 自己否定의 要素로 근심함, 의로움, 경건⁹⁴⁾이 있다고 하면서 人生의 行動을 요약했다.

① 「근심함」은 현세에서의 선(혹 물질)을 순결하게 생각하며 절제있고 검약하게 사용하고 窮乏에서도 忍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義」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正當한 것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들의 이웃과 교제하는 공정한 의무를 포괄한다.

③ 「경건함」은 세상의 不義로부터 구별시켜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

90) 상계서, Ⅲ권 7장 1항.

91) 상계서, Ⅲ권 7장 2항.

92) 주석, 마15:24.

93) 기독교강요, Ⅲ권 7장 2항.

94) 주석, 달2:11~14.

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相關 關係를 이룰 때 完全한 結實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⁹⁵⁾

自己否定을 이같은 要素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現世에서 나그네가 행인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聖徒와의 關係에서 自己否定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도록 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容恕와 謙遜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때 自己를 否定할 수 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공경하는 자세와 이웃에 대한 선행을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使命을 갖고서 전심전력을 할 수 있는 데는 우리의 罪惡된 本性을 고침받지 않고서는 命수를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⁹⁶⁾

맹목적인 자기 사랑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해서는 寬容을 베풀어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때로는 덕으로 포장하여 즐기기가 하나 남에 대한 허물에 대해서는 銳利하게 비난하며 擴大해서 말하는 자기 왕국을 세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才能들이 自身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여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더 나아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서 자랑하는 背恩忘德을 폭로해서는 안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서로 尊重하고 尊敬하여 높여주며 비난하지 아니하고 호의와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며 자신을 버려 낮아지고 남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眞情한 온유에 도달해야 한다.

칼벵은 우리가 自身을 끊어 버리고 전적으로 남에게 내어 주지 않는 한 바울이 가르친 “사랑”은 별 意味가 없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5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한가지만 要求한다 해도 우리의 天性을 적지않게 억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95) 기독교강요, Ⅲ권 7장 3항.

96) 상계서, Ⅲ권 7장 4항.

우리가 所有하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위탁하신 것은 이웃의 有益을 위해 모든 은사를 정당히 使用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있다는 것이다.⁹⁷⁾

이런 은사들은 우리 몸의 여러 지체에 주어진 기능에 比較하고 있다.⁹⁸⁾ 어느 지체도 同僚인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며 전신의 공동 유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청지기요 관리인으로서 사랑의 規範에 의해 수행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다.

칼벵은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모든 사람에게 奉仕한다는 것이다. 이 형상 때문에 이웃은 尊敬과 사랑을 받게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낮은 사람으로 친하거나 아는 사이가 아니라해도 輕蔑하거나 輕視해서는 안되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 형상의 아름다움으로 장식하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 자신과 모든 所有를 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不正한 行爲나 사악 등으로 우리를 격분시킨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를 우리는 사랑으로 容納해야 하며 그 사람의 흉악함을 생각하거나 보기 전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⁹⁹⁾

우리에겐 損害를 끼치고 侮辱를 주어 분노케 하고 사랑으로 奉仕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으며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는 것을 인식하여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길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¹⁰⁰⁾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mortificatio).¹⁰¹⁾

그리스도인끼리 기쁜 얼굴을 하며 친절한 말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랑의 義務를 다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곧 심중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칼벵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強調한다.¹⁰²⁾ 더 나아가서 “現實에 당면한 모

97) 기독교강요, Ⅲ권 7장 5항.

98) 주석, 고전12:12이하.

99) 기독교강요, Ⅲ권 7장 6항.

100) 상계서, Ⅲ권 7장 6항.

101) 상계서, Ⅲ권 7장 7항. 이것이 칼벵에 의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마5:44)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갚고 저주하지 말라”(눅17:3-4)의 뜻이다. 칼벵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의 명을 성취하는 길과 방법으로 마22:39에 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지시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복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했다.

든 사건까지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生活 全體를 주의 뜻에 맡기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自己를 眞情으로 否定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確認하기 위해서는 우발적인 사건을 당해보면 밝히 드러날 것이다.

여러가지 疾病이 꼬리를 물고 염병이 창궐하고 戰爭의 재난에 휩싸여 殘忍하게 苦生하며, 서리와 우박이 農作物을 망치고 기근과 窮乏에 威脅을 받는다거나 때로는 아내나 양친,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죽음을 당하며 집이 불타 없어진다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연이어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사람들은 생을 詛呪하고 태어난 날을 憎惡하고 하나님을 잔인하고 불의한 분이라 욕하며 가혹한 분이라 비난하고 冒瀆까지 할 것이다.¹⁰³⁾

그러나 信實한 信者는 하나님의 寬容과 慈悲를 믿고 원망이나 투덜거리지 않고 “우리는 주의 보호아래 있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이로다”¹⁰⁴⁾라는 確信을 갖고 굳게 믿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칼벵은 말하기를 “信者가 災殃을 만날 때 異邦人처럼 運命으로 돌린다든지 숙명론과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行爲를 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이 좋던 나쁘던 우리의 심판자요 주관자이며 모든 역경의 주장자이시며 모든 일에 秩序整然하시며 善과 惡, 幸福과 不幸을 均等하게 하시는 분이다”¹⁰⁵⁾고 생각할 것이라 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알고 平溫에 感謝하는 마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명령에 항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과 모든 所有를 하나님의 권한에 영원히 讓渡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이 그런 평강을 선물로 許諾할 것이다.

3) 十字架를 지는 일

칼벵은 十字架 지는 일을 自己否定의 일부분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信者가 十字架를 지는 것을 성도들 가운데 불행을 당한 자만이 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그리스도

102) 상계서, III권 7장 9항.

103) 상계서, III권 7장 10항.

104) 성경, 시79:13.

105) 기독교강요, III권 7장 10항.

인이라면 누구나 必然的으로 저야 하는 것으로 信者에게 있어 징표와 같은 것이다.

信者가 되는 資格으로 어렵고 고생스럽고 불안하고 온갖 재앙을 이겨내야 함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께서 일정한 과정을 通過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다.

十字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態度는 스토아주의자들의 態度와는 다르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자아 통제와 용맹을 추구한다. 그래서 “고결한 靈을 所有한 人間”(the great souled man)은 모든 人間的인 감정을 벗어 버린 사람이요 무감각한 돌처럼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影響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칼벵은 스토아주의자들의 이론을 거부하면서 주님께서는 自身과 다른 사람의 災難을 위해서도 슬퍼하시고 우셨으며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내세운다.

예수님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¹⁰⁶⁾고 가르치시며 더 나아가서 이런일을 罪惡視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哀痛하는 자는 福이 있나니”¹⁰⁷⁾라고 하셨다.¹⁰⁸⁾

주의 一生은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十字架, 즉 苦難과 逆境의 生活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十字架의 생활이 그의 百姓들을 통해서 繼續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聖徒가 十字架를 지고 고통하며 고난을 겪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신자로서 必須的으로 갖추어야 할 順從을 배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는 그 이유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苦難으로 順從함을 배워야 했다”¹⁰⁹⁾고 했다. 죄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 복종하심을 우리를 위하여 복종하심으로 인내의 모범이 되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¹¹⁰⁾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한다고 肯定的인 목적을 작정하셨다.¹¹¹⁾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심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시키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災難과 逆境을 이기고 하늘나라 榮光 가운데로 들어간

106) 성경, 요16:20.

107) 성경, 마5:4.

108) 기독교강요, Ⅲ권 8장 9항.

109) 성경, 히5:8.

110) 성경, 롬8:29.

111) 기독교강요, Ⅲ권 8장 1항.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榮光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배려이다. 이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는 죽히 비교할 수도 없는 榮光이다. 바울 사도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復活의 權能과 그 고난에 동참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復活에 이르러 하노라”¹¹²⁾고 가르치고 있다. 결국 주님과 교제를 하는 동안 받은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祝福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한층 증진시켜 나가게 한다는 것이다.¹¹³⁾

주를 따르다는 것은 十字架를 지는 것을 의미하여 十字架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순종을 증거하고 입증할 필요가 없으시며 또한 십자가 지는 일을 할 필요가 없으시다. 그러나 우리는 十字架 지는 일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¹¹⁴⁾

(1) 謙遜

모든 일이 잘될 때에는 그 자신을 過大 評價하며 어떤 역경을 만나도 능히 이겨 나갈 것처럼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의 能力으로서도 충분히 무엇인가를 해낼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자의 마음을 갖기가 쉽다. 이러한 자만심을 꺾고 謙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않고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벳은 謙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케 하는 方法으로 굴욕이나 핍박이나 친지의 죽음이나 질병같은 시련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이 시련을 극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能力”만이 必要함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傲慢을 꺾는데는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것 허약함을 체험하는 것 이상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知識을 배우게 하지 않으면 過信을 하기 때문이다.

112) 성경, 빌3:10,11.

113) 전계서, Ⅲ권 8장 1항.

114) 상계서, Ⅲ권 8장 2항.

이런 자기 만족이 다윗에게도 나타났는데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恩惠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¹¹⁵⁾고 한 것이다.

칼벵은 대부분 성도들이 “형통할 때는 忍耐와 貞操를 잘 지키며 자랑하나 困窮에 빠져 봄으로써 영적으로 병약한 중에서 自身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謙遜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깨달으며 그 힘이 우리를 謙遜케 한다는 것이다.

(2) 忍耐

십자가는 그 苦痛을 통하여 忍耐¹¹⁶⁾를 배우며 인내는 소망을 갖게 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¹¹⁷⁾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患難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 도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約束을 받고 忍耐하고 참을 때 실제 經驗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는 증거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십자가는 자기 사랑을 없앨 뿐 아니라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자신을 信任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하며 確信을 굳게 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確實하고 불변함을 이미 체험하였기에 그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배운 망덕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참고 忍耐하며 하나님을 의지 한다는 것이다.

칼벵은 患難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된다”고 했다.

(3) 服從

115) 성경, 시30:6,7.

116) 전계서, III권 8장 3항.

117) 성경, 롬5:3, 4.

칼벵은 하나님께서 信者들에게 患難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 그들의 “忍耐心”을 시험하고 “순종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칼벵은 또 십자가를 통하여 順從토록 敎訓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主張대로 변덕을 부리며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배운 것이라 했다.¹¹⁸⁾

(4) 放縱(病)

칼벵은 肉體를 따라 방종하는 生活을 앓고 있는 중병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약을 달리 쓰듯이 모두에게 동일한 方法을 쓰시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十字架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十字架를 즉 각기 다른 十字架를 지고 연단을 받게 하여 앓고 있는 重病을 치유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칼벵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면에서 병들어 있다고 한 것을 유념할만 하다.¹¹⁹⁾

(5) 懲戒

우리가 苦難을 받게 된 것은 죄를 범한 연고이며, 범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苦難을 겪게 하신 것이라고 칼벵은 가르치고 있다. 또한 주께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 것은 聖經 고린도 전서 11장 32절에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칼벵은 환난으로 인한 고난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寬容과 자애로 인정해야 하며 괴로움 중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멸망시키거나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世上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도구로 삼아 부르지 않는 한 멸망 당할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聖經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만약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

118) 전계서, Ⅲ권 8장 4항.

119) 상계서, Ⅲ권 8장 5항.

서 우리에게 이런 慈悲를 베푸심은 救援을 위한 關心을 보여주신 것이요, 이에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해야하며 또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恭敬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전진해야 할 것이다.

(6) 逼迫을 받는 것

칼벵은 의를 위하여 逼迫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福音을 守護하고 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분노와 憎惡를 불러 일으켜 生命이나 財産이나 명예를 위협할 때 우리는 자신을 비참하다고 보아서는 안되며 도리어 그리스도의 핍박에 동참함을 상기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심이라”¹²⁰⁾는 말씀처럼 기뻐해야 할 것이다.

가난 자체는 비참하다. 추방, 고독, 감옥, 치욕 등이 그렇고, 죽음 자체도 재앙 중 극치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恩惠의 기운을 불어 넣을 때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한다.

성도들이 고통을 겪어본 經驗으로 十字架를 질 때 勇敢히 이겨내는 忍耐를 배우게 되며 우리가 슬픔과 고통으로 상처를 받는다해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인내로써 十字架를 진다는 것은 나만의 것임이 아님을 깨닫고 스스로 위축된다든지, 해야 할 것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칼벵은 고통이나 슬픔이나 번민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뜻을 따르기로 하자”고 하여 힘을 얻고 忍耐로써 기쁘게 견디어 낼 것을 主張하고 있다.¹²¹⁾

칼벵은 그리스도의 忍耐를 “우리가 가난이나 추방이나 모욕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그 외 어떠한 재난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잊지 말 것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모두 변치 않는 공의의 역사이다”고 가르치고 있다.¹²²⁾

120) 성경, 행5:41.

121) 전계서, III권 8장 10항.

122) 상계서, III권 8장 11항.

Ⅲ. 칼벵의 生活 倫理의 실제 적용

1. 基督教人의 社會生活

1) 칼벵의 社會에 대한 견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創造하시고 그 가운데 人間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을 칼벵은 이땅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서로 그들간에 相互 依存하는 社會(mutual society)를 이룩하여 聖經의 말씀(창1:28)을 성취하고 사람의 근본된 目的을 이루게 함에 있다고 했다.

이것이 人間이 시작한 사회의 첫 단계라 하겠다.¹²³⁾ 물론 하나님께서 전 宇宙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기에 人間の 秩序를 均衡있게 운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나¹²⁴⁾ 하나님께서 이런 社會를 만들어 주신 것은 人間에게 有益을 주기 위함이다.¹²⁵⁾ 그래서 모든 人間에게는 社會를 이룩해 나갈 성향을 주셨으며¹²⁶⁾ 사회적인 동물(social animal)로 피조되어 生活을 하게 한 것이며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요¹²⁷⁾ 함께 공동적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이웃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도록 피조되었다는 것이다.¹²⁸⁾ 도움을 더 받았다고 이익이 되고 도움을 주었다고 손해가 된 것이 아니며 따져 놓고 보면 어느 한편만의 이익도 또는 손해도 아닌 공동의 유익이라는 것이다.

123) 주석, 창2:18.

124) 주석, 창1:14.

125) 주석, 단4:12.

126) 기독교강요, II권 2장 13항.

127) 주석, 사5:8.

128) 상게서, 사59:6, 레25:35-38, 신23:19,20, 고후9:10. 기독교강요, II권 8장 39항. 주석, 사59:6에서는 “해악만을 피하며 있는 힘을 다해 선을 기피하는 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야만스런 짐승이다”고 했다.

또한 온 人類는 아담 한 몸에서 태어난 한 가족이요 한 형제로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이유때문이다.¹²⁹⁾ 아담 이후 많은 人間이 태어나 이땅을 채워가고 있으나 根源은 하나로서 협력하며 보살피 주고 도와주며 살도록 규정되었다.¹³⁰⁾

共同社會라는 그 의미 자체가 人間으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상호 혜택을 동일하게 주고 받도록 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유인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칼벵은 말한다.¹³¹⁾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表現이며 서로 돕고 삶으로서 하나님의 베푸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이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賞金을 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럼 社會的 關係에 있어 칼벵이 갖는 思想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에 의해 부패되었으나 말살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즉 불신자들에게서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reflection)을 볼 때만 可能하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사람은 하나라는 것이며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異邦人이나 野蠻人이라 해도 그들 자신이 우리의 이웃이며 형제라는 것을 가르치며 곤궁에 처해있는 사람을 볼 때 相互 協力해야 하며 그러는 가운데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더욱 친밀해지면 할수록 이웃에 대해 義務를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하려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향하고 여기서 비치는 빛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¹³²⁾

셋째, 진정한 이웃은 서로간에 하나님께 完全한 責任을 포함한다. 이웃에 대한 신성한 책임은 왕이나 정복자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으며 奉仕함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129) 상계서, 창14:1, 레19:18, 시55:14; 기독교강요, II권 8장 39항, 40항.

130) 상계서, 창1:28; 12:5, 출20:15, 신5:19, 창12:5에서는 “인간이 서로간에 상부상조의 사회를 개발시키려는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 함.

131) 상계서, 마5:45.

132) 기독교강요, II권 8장 55항.

칼벵은 모든 사람이 상호 責任의 義務를 갖는다고 정의했다.¹³³⁾ 이는 칼벵은 이에 예외가 없으며 개인의 어떤 階級이나 계층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상에서는 부와 지위와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영생의 所望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하나이며 그리스도는 이런 것에 관계없이 모두의 머리이다. 이와 같이 서로 협력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며 사회를 형성한다.¹³⁴⁾

이런 사회 질서가 人間의 墮落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인간의 본성이 타락함으로 결혼, 가족, 사회가 뒤틀려 本來의 조화가 깨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社會는 해체된 것이다.

이런 타락한 인간사회의 回復은 인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可能하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이며 머리와 지체가 연합될 때 인간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아가 지체인 聖徒들의 상호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敎會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연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이웃과의 關係에서 사랑과 관심은 필연적인 의무이다.

칼벵은 社會的 關心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첫째, 하나님의 主權을 크게 강조했다.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으로 칼벵이 그 自身의 시대에 문제를 취급하려 할 때 그의 계획은 宇宙의 입법자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概念에 근거를 두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 世界의 所有權을 획득하셨고 그의 왕국은 福音 宣布와 함께 그의 지배 밑에 살게 하실 목적으로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드린 것이다.

이는 종교개혁으로 - 불신자에 의해 썩고 부패한 社會에 대해 탄식만 할 것이 아니고 신자들은 사회 안에서 - 개혁될 때까지 전진해야 한다. 칼벵은 “영적 영역이나 세속적 영역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시키며 基督教人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

133) 주석, 엡5:21.

134) 상계서, 창2:18.

켜 하나님의 榮光을 드러내야 한다”¹³⁵⁾고 말한다.

둘째, 일반 은총을 인정한다.

人間的 구원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역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能力을 두셨다. 人間은 이것으로 세속적인 일을 처리해 나간다.¹³⁶⁾ 그래서 인간은 서로 돕기를 원해야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지 말고 이용해야 한다.¹³⁷⁾ 칼벵은 인간이 墮落했어도 이런 일반 은총을 人情하며 人間의 공공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라 했다.

셋째, 칼벵은 社會的 관심을 형성하는데 성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서는 人間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聖經에 계시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그에 따라 살도록 했다.¹³⁸⁾

칼벵은 성경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고자 했다. 따라서 성경을 상고해야 하며 아무리 큰 능력을 받고 각종 은사를 갖었다 해도 성경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않고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없다.

성경을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은대로 살아야 함도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머리 속에 아무리 많은 성경지식을 갖었다 해도 또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암기한다 해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실천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 말하고 듣는 것으로 그쳐 버린다면 허무맹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넷째, 칼벵은 사회속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조직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해야 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으로 야기된 무질서와 부패를 막기 위해서 國家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國家는 人間의 罪惡性을 제재시키며 질서를 유지하여 公共福利를 증진시켜야 한다.

교회와 국가에 대한 칼벵의 이해는 양자는 구별되었으나 相互協助的이며 또한 겹치는

135) 기독교강요, Ⅱ권 2장.

136) 상계서, Ⅱ권 2장 13항.

137) 상계서, Ⅱ권 2장 15항.

138) 상계서, Ⅰ권 6장 1항.

부분으로 道德性的 문제를 지적했다.

2) 家庭 倫理

社會生活에 있어서 한 男子와 한 女子의 연합문제는 대단히 중요(the princical)하며 신성(the most sacred)한 것이다. 이는 不可分의 社會(individua societas)이며¹³⁹⁾ 사회의 모든 질서에 있어 기초가 된다.¹⁴⁰⁾

인간이 혼자서 생활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¹⁴¹⁾ 주체 넘은 행위라 할 것이다.¹⁴²⁾

① 結婚(夫婦 關係)

결혼¹⁴³⁾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¹⁴⁴⁾ 자연의 합법적 질서¹⁴⁵⁾로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永遠한 하늘에 법이다.¹⁴⁶⁾ 結婚은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신 언약으로써 인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¹⁴⁷⁾

人間이 墮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나 타락 후에도 무절제한 정욕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 結婚은 더욱 필요하다.¹⁴⁸⁾ 그러나 結婚이 악에 대한 치료제가 될 수는 없으며¹⁴⁹⁾ 結婚을 하지 않고도 지낼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結婚에 대해 자유를 준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되는 일은 相互 同意에 따르며 결정하는 것 같으나 이 關係를 끊을 수 없도록 묶는 분이 하나님이다.¹⁵⁰⁾ 그래서 結婚의 매임으로 한 사람, 한 인격이 된다.

139) 주석, 마19:5.

140) 상계서, 출20:12.

141) 성경, 창2:18.

142) 주석, 마19:12.

143) 성경, 창6:2 ; 20:9, 겔18:6, 마19:6, 엡5:28.

144) 주석, 창2:18.

145) 상계서, 창16:1.

146) 상계서, 마19:7.

147) 상계서, 신22:22, 말2:14.

148) 기독교강요, II권 8장 41항.

149) 전계서, 고전7:2.

150) 상계서, 마5:31, 엡5:28,31에서 결혼의 매임으로 한 사람 한 인격이 된다고 했다.

夫婦의 결합은 子女와의 관계와는 별개다.151) 간음의 경우나152) 불신 배우자가 신앙 있는 配偶者의 경건을 문제삼아 배척하는 경우153)를 제외하고는 離婚은 不可하다.154)

결혼의 계약 파기는 자연 질서의 파괴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법을 거역하는 行爲이다.155) 夫婦는 한 男子와 한 女子로 이루어져야 하며156) 어떤 理由로도 파기할 수 없는 불변한 원칙이다.

일부다처제는 타락의 소산이며157)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158) 결혼으로 인한 남녀의 權利와 義務가 다르다. 그러나 結婚의 신실성을 보존함에 있어서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159)

아내는 남편의 반쪽으로서160) 虐待해서는 안되며161)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할 수도 없다.162)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괴물과도 같으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로서 “相互福利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라고 했다.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며 이 순복(obey)은 사회적 복종(civil subjection)의 일부이다.163) 그리스도의 권위와 남편의 권위가 같은 것은 아니나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할 것을 말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한 그리스도에게도 복종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164)

이에 남편도 분별력, 즉 자기들의 무절제함과 어리석음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아내를 다스려야 하며 이 속에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함이 내포되어 있다.165)

151) 주석, 고전6:18.

152) 상계서, 마5:31.

153) 상계서, 마19:9, 고전7:12,15.

154) 상계서, 마19:9.

155) 상계서, 말2:14.

156) 상계서, 말2:14, 15, 마19:5.

157) 상계서, 창4:19.

158) 상계서, 시45:8,9.

159) 상계서, 고전7:3.

160) 상계서, 말2:14.

161) 상계서, 말2:16.

162) 상계서, 엡5:28.

163) 상계서, 벰전2:18.

164) 상계서, 엡5:22, 골3:18.

165) 상계서, 벰전3:7.

② 父母와 子女와의 關係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손히 服從하지 않고 권위있는 자들이 마땅히 존경을 받지 못하는 社會는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父母 공경은 自然의 永久한 法則(the perpetual law of nature)이요¹⁶⁶⁾ 自然의 제 1원리(the first principles of nature)이며¹⁶⁷⁾ 모든 질서의 기초이다.¹⁶⁸⁾

父母가 尊敬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하고 불경건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모라는 것만으로 자녀는 服從해야 하며 尊敬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 권리는 하나님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내에서이다.

父母에게 순종하지 않음은 무지한 처사이고 하나님의 絶對 權威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父母가 子女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권위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조건 父母에게 順從을 권면한 것이 아니고 “주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였다.¹⁶⁹⁾

父母 또한 절제없이 子女들을 거칠게 다룸으로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그렇게 하면 증오심을 자극하게 되고 그 멩에를 떨쳐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친절하고 자유스럽게 자녀를 대하여 온유함으로 주의 敎養과 訓戒로 가르쳐야 한다.¹⁷⁰⁾

③ 性

夫婦간의 존중은 창조의 제 1원리요, 父母의 공경은 自然의 제 1원리라고 하면 성윤리는 社會의 제 1원리이다.¹⁷¹⁾ 간음은 큰 죄¹⁷²⁾이며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다.¹⁷³⁾ 하나님이 순결을 사랑하시므로 우리 모두는 또한 純潔해야 한다. 정조는 보화이다.¹⁷⁴⁾

2. 基督教人的 政治生活

166) 성경, 출20:12.

167) 주석, 출20:15, 17, 레19:32, 신16:18 ; 20:9.

168) 상계서, 출22:28, 레19:32, 신16:18 ; 20:9.

169) 상계서, 출20:12.

170) 상계서, 엡6:4.

171) 상계서, 창38:24.

172) 상계서, 창20:9.

173) 상계서, 신23:17. 전계서, II권 8장 41항.

174) 상계서, 21:24.

우리가 위정자들에게 굴복해야 함은 人間關係에서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거룩한 명령으로 주어졌다.175) 더우기 人間이 墮落한 이후 人間은 천성적으로 자만(교만), 맹목적인 자기 사랑, 광포, 탐욕 등은 정치적으로 保護를 필요하게 한다. 176)

人類를 파멸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다.177) 합법적인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행사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짐으로 社會는 지속되어 나간다.178) 인류의 공익을 위하여179) 세워진 정부의 秩序는 지켜져야 하며 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획책하는 자는 국가 원수요, 人類의 적이며 人間의 악이다.180)

이러한 政治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질서를 유지하신다.181) 이는 하나님의 법정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목적이라 하겠다.182)

1) 두 나라(靈的인 統治와 世上 統治)

人間은 이중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는 靈魂의 내부에 있거나 영원한 生命에 관한 내면적인 지배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정의의 규제를 지배하는 外面的인 支配이다.183) 그래서 二重의 統治(a two fold government)가 필요하다. 곧 영적통치(spiritual government) -良心이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는- 와 정치적 통치(political government) - 人間으로서 준수해야 할 인도와 예절에 관해 의무를 교육받는 - 인 것이다.184)

각 統治의 성격을 살펴보면 靈的 統治는 靈魂 즉 永生에 관계된 통치요 영혼의 생활에

175) 전계서, IV권 20장 4항; 전계서, 롬13:1, Abraham Kuyper는 "lectures on calvinism"에서 정치제도의 유래(기원)을 타락한 인간의 속성으로 인한(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책에 두었다.

176) 상계서, 단4:12.

177) 상계서, 롬13:3, 신16:18.

178) 상계서, 신16:18.

179) 상계서, 시82:5, 신16:18, 렘40:19, 시821.

180) 상계서, 사3:4. 기독교강요, IV권 20장 2항.

181) 상계서, 전2:14.

182) 주석, 출18:15.

183) 기독교강요, IV권 20장 1항.

184) 상계서, III권 19장 15항.

속한 것이며 마음에 있고 靈的인 나라에 있으며¹⁸⁵⁾, 政治的(世上) 통치는 시민생활의 정의와 외적인 道德性 確立을 하는데 현세 생활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행동을 규제하며 거룩하게 그리고 절제있게 社會生活을 하게하는 나라이다. 두 통치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를 尊重하고 社會 정의를 이룩하여 公共의 安寧과 平和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目的이 있다.¹⁸⁶⁾ 결국 두 통치는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

2) 世上 政治(政治的 統治)

하나님은 세상 정부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권력이 그 분에게서 나온다.¹⁸⁷⁾ 이에 세상의 통치자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주어진 義務感을 갖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 비길 바 없는 위안을 갖을 수 있다. 왜냐하면 自身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잘못을 범한다면 단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를 가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¹⁸⁸⁾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봉사하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직책을 맡았다고 생각할 때 위로가 된다는 것이다.¹⁸⁹⁾ 또한 통치자 자신들이 권세를 남용하여 사칭하거나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잘못을 막는다.¹⁹⁰⁾

정부가 하는 일은 빵과 물, 태양과 공기 못지 않게 중요하며 그 가치는 그것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다. 人間의 활동에 필요한 생활 방도를 마련할 뿐 아니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하나님의 진리 왜곡과 似而非 宗教가 社會에 발생하거나 만연하여 人間의 전상적인 生活을 방해하는 행위, 치안 유지와 시민의 財産을 保護하며 인간 상호간의 信賴 回復, 정직과 겸양의 덕을 유지하게 함에 목적이 있다.¹⁹¹⁾ 원컨대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宗教生活을 하게 하며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185) 상계서, II권 19장 15항.

186) 상계서, IV권 20장 2항.

187) 상계서, IV권 20장 4항; 주석, 출18:15, 신1:16, 롬13:1, 벰전2:13.

188) 주석, 사3:14, 15.

189) 기독교강요, IV권 20장 6항.

190) 주석, 출18:15.

191) 기독교강요, IV권 20장 3항.

하는 것이다.

칼벡은 하나님의 律法을 포함하여 참된 宗教가 공공연히 冒瀆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정부를 強調하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信仰生活에 대한 법을 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統治者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법률이다. 이는 公共의 일을 하는데 우리 몸에 힘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¹⁹²⁾ 지배하고 法律을 유지하는 統治者, 統治에 표준이 되는 법,¹⁹³⁾ 법에 의해 통치를 받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政府의 統治者는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行爲를 해서는 안되며¹⁹⁴⁾ 罪를 가볍게 처벌하거나 악이 판을 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¹⁹⁵⁾

政府의 통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自由를 적절히 절제로서 조절하며 이 위에 바르게 확립된 政治制度가 가장 좋으며 이런 형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¹⁹⁶⁾

3) 하나님과 政治 關係

하나님께서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¹⁹⁷⁾ 지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다.¹⁹⁸⁾ 그래서 統治者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다.¹⁹⁹⁾

우리들은 세상 政府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爲政者들을 다스리시며 혼돈된 질서를

192) 상계서, IV권 20장 14항.

193) 상계서, IV권 20장 3항. 칼벡은 단4:10 주석에서 국가를 말할때 법치국가를 생각했으며 그 정치형태가 어떠한 질서를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질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법적질서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82:1 주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모든 분야에 비취진다 할지라도 사람들 가운데서 합법적인 통치(lawful government)가 행해질 때라야 가장 아름다운 광채가 난다고 하고 있다.

194) 주석, 행5:29.

~195) 상계서, 신22:22.

196) 기독교강요, IV권 20장 8항.

197) 주석, 롬13:1, 기독교강요, IV권 20장 7항, 단2:33.

198) 상계서, 사37:16, 시82:8.

199) 상계서, 시127:1.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정당한 統治權이 행해지도록 간구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00) 그리고 統治者는 규모있는 行動을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從屬되어야 함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福에 의해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201)

4) 法的 秩序

타락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무절제하며 탐욕스런 모습으로 변하였다. 이 변질된 인간이 현세 생활에서 바르고 거룩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법이 필요하다.202)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통치자 다음가는 것이 법이며 이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위마저 존재할 수 없게 된다.203)

하나님께서서는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며 평온케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법의 멍에 아래 두었다.204) 주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 이성과 법에 예속되게 했다.205)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적 질서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의해 합법적인 통치(lawful government)가 행해져 아름다운 광채로 돌려지기를 원하심 때문이다.

① 하나님의 法(The law of God)과 人間의 法(Human laws)

인간에게는 두 세계가 있으며 여기에 이중의 統治가 필요하고206) 두 세계가 각각 다른 임금과 다른 法律의 권위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한다.207)

이중통치에 따른 法의 구분의 必要性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구분이 필요하다. 즉 타인으로부터 不當 이익을 당할 때 소송 그 자체는 선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200) 상계서, 시82:8 ; 66:7, 창20:9.

201) 상계서, 시127:1, 단6:22.

202) 기독교강요, III권 19장 15항.

203) 상계서, IV권 20장 14항, IV권 20장 3항.

204) 주석, 신16:18.

205) 주석, 시28:1, 말2:4.

206) 기독교강요, IV권 20장 6항.

207) 상계서, III권 19장 15항.

동기가 따르지 않는한 良心의 가책을 면하지 못한다.208) 곧 국가 법정(the civil court)과 양심의 법정(the court of conscience)을 구분해야 한다.209)

그러나 무엇보다 한계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들 自身을 위해 스스로 만든 法으로 良心을 구속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침해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한다.210)

國家의 法은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며 인간의 도덕에 따라 바뀐다.211)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法은 예매에 도입되고 宗教를 규정하는데 이 法은 人間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quis possint)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quis debeant)를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完全無缺한 의(perfect and complete righteousness)가 담겨 있다.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율법은 자연법의 증거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혼속에 새겨진 양심의 증거이다.212)

② 두 法(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상호 관계

人間的 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있어 하나님의 權利를 무시하고 사람의 일만을 돌보는 법은 잘못된 것으로 어리석은 것이다.213) 契約의 왕들과 사사기에 나오는 무정부상태가 증명한다.214)

人間이 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두 法 사이에 하나님의 法이 上位法으로 남아야 한다.215)

③ 立法

모세에 의하여 공포된 하나님의 律法은 ㉠道德에 관한 律法 ㉡의식에 관한 律法 ㉢재판에 관한 律法으로 구분한다.

208) 주석, 마26:52.

209) 상계서, 칼벵은 인간의 법(human laws) 중 국가의 법과 대응하는 법정을 국가의 법정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응하는 법정을 양심의 법정으로 말함. 기독교강요, III권 19장 15항에서는 외부의 법정, 양심의 법정. 기독교강요, IV권 10장 5항에서는 지상의 법정, 양심의 법정으로 말함.

210) 상계서, 램35:6.

211) 상계서, 마5:31.

212) 기독교강요, IV권 20장 16항, 자연법에 대해서는 기독교강요, II권 2장.

213) 상계서, IV권 20장 9항.

214) 주석, 사21:25.

215) 상계서, 마19:7.

道德的인 율법은 순수한 신앙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인간을 성실한 사랑으로 받아들여 自身の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원하는 모든 民族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규정된 참되고 영원한 의의 규범이다.

의식의 관례는 유대인 敎會에서 초보교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게 함으로 경건에 대한 敎訓에 속하거나 경건 그 자체와는 구별되며²¹⁶⁾ 재판에 관한 律法의 형태도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명령한 사랑을 잘 보존하려는 의도였으나 사람의 敎訓 그 자체와는 다른데가 있다.

그것은 경건이 의식법이 폐지되고도 손상되지 않으며 재판법이 폐지되고서도 사랑해야 한다는 영원한 義務와 敎訓은 여전히 남아 있다²¹⁷⁾는 말이다.

각 민족은 유익이 되는 法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란 영원한 표준에 일치하여 만들어야 하며 형태는 다르더라도 目的(purpose)은 같아야 한다. 법정에 있어 또한 公평성(equity)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모든 法의 목표가 되고 표준이 되며 한계가 된 것이다.

④ 사법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부여 받은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법정을 땅 위에 세워야 하는 사명 의식이 필요하며²¹⁸⁾ 公평과 正義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²¹⁹⁾ 社會(秩序) 維持의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

裁判官들은 자신의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²²⁰⁾ 명심하여 주제 넘은 짓을 해서는 안되며 裁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여 유한한 인간을 두려워 하지 말고 바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확실한 증거 없이는 문제의 罪를 처벌해서는 안된다.²²¹⁾

외국인도 자국민과 같이 保護를 받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큰 무지의 소산이며²²²⁾ 처벌에 있어 적절해야 하며 바른 집행이 이루어 질 때 범죄

216) 기독교강요, IV권 20장 5항.

217) 상계서, IV권 20장 15항.

218) 주석, 출18:15.

219) 상계서, 렘22:3, 주석, 레19:35.

220) 상계서, 신1:16, 출18:15.

221) 상계서, 신17:6 ; 19:15.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²²³⁾

3. 基督敎人의 經濟 倫理

1) 칼뱅시대의 경제 상황

칼뱅 당시 제네바는 다양한 産業이 발달 하였는데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變化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16세기 서구 사회는 百年 戰爭, 부르군디 戰鬪, 이태리 戰鬪 등의 戰爭으로 황폐화 되어 갔고 사회는 經濟秩序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였으며, 새로운 세계의 발견은 유럽에 엄청난 양의 금과 산업을 발달시켰으며 산업의 발달로 의류, 피혁류, 시계, 보석, 서적 등이 생산되고 교역이 活潑해졌다.

이런 현상으로 資本主義가 발달하였는데 여기에 따라서 생계비는 치솟고 노동력의 가치는 하락하여 都市와 農村에서는 급속한 무산 계급(다수의 임금 노동자)이 출현하였다.²²⁴⁾ 이 때 칼뱅이 제네바의 교회를 맡게 되었고 칼뱅은 신자들에게 진리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하여 이런 현상의 교회와 사회 내면의 뿌리깊은 불만의 물꼬를 터뜨리는 社會的 變化를 야기 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생각만을 하는 中世 社會가 무너지며 福音의 재발견과 사회문제에 교회가 전적인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고 個人 信仰에 자유가 주어지고 사회문제들이 신학 사상에 침투하면서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고 이 일은 칼뱅이 로마교회를 떠나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役割을 했다.²²⁵⁾

칼뱅은 信仰과 世上을 두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세속 도시에 대한 큰 관심을 갖었다.

칼뱅은 시민의 生活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가난을 방지시키며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222) 상계서, 신22:22.

223) 상계서, 례24:17, 19,

224) 앙드레 비엘리, 「칼빈의 경제윤리」 (홍치모 옮김, 1992), PP. 51-55.

225) 이태언, 「칼빈의 개혁사상 연구」 1992, PP. 141-143.

있어 자신의 지도 원리인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公共福祉와 秩序에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시켜 나갔다. 칼뱅은 人間의 실제 生活의 모습을 聖經에 근거하여 제시했던 것이다.

2) 돈

① 하나님의 道具로서의 돈

칼뱅은 聖經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완성키 위해 돈을 도구로 가르쳤다. 또한 돈은 靈的 사명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존케 하는 하나님의 恩寵의 표시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다.

돈은 믿음을 통하여 그의 모든 所有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내린 恩寵의 표시인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표시인 것이다.

福音은 개인이 돈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여하에 따라 어떤이는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어떤이는 더 적게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人間은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社會의 발전과 有機的 關聯을 맺고 있는 존재로 사회적 존재이다.²²⁶⁾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尊嚴性을 회복한 인간은 다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으로부터 物質을 공급받아 상호간에 유통하게 되는데 물질적인 재산의 분배는 信者들 사이에 존재하는 靈的인 교통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한다.

칼뱅은 진정한 宗教生活과 부의 교통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 모든 靈的 생활은 모두 허위이고 거짓이라고 폭로하며 그리스도가 전파한 진정한 基督教적 사랑은 단지 영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돈을 유동자본으로 여기는 것이라 했다.

칼뱅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하여 道德的인 罪 때문이 아니고 信仰 생활이 물질 생활 속에 스며들지 못한 잘못으로 비난 받았다고 말한다.²²⁷⁾

226) 앙드레 비엘리, 「칼빈의 경제윤리」 (홍치모 옮김) P. 56.

227) 주석, 마19:1.

教會의 직무는 단지 영적인 직무만이 아니고 인간의 具體的인 삶과 관계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설교하심에 있어 칼벵은 “이제부터는 …… 육체를 돌보는 일까지도 그 직무에 속한다고 했다. …… 이를 통해 ……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確信시키신다²²⁸⁾”고 했다. 곧 말씀의 전도가 물질적인 생활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칼벵은 목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교회는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도 분배와 교통이 있어야 한다. 각자 개성을 존중하고 信者들이 각자의 才能과 要求에 따라 서로 교통하는²²⁹⁾ 아주 적절하고 아름다운 면을 칼벵은 肯定的으로 강조하고 있다.²³⁰⁾

부의 분배와 교통에 있어 어떤 양적인 기준은 없으나 信仰 안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할 때²³¹⁾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²³²⁾

教會가 소유하는 문제에 대하여 칼벵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탐욕으로 인한 재물에 所望”을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가난하다면 忍耐해야 하고 부유하다면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財物을 포기 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고 하나님은 主人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실히 일해야 한다. 正當한 방법으로 주인의 원하심을 따라 관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生活에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 이웃을 속이거나 기만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부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²³³⁾ 그렇다고 가난은 하나님의 祝福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내가 所有하고 있다고 모두 내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 청지기로서 잘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무상으로 맡긴 것이므로 재물을 낭비하거나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奢侈, 虛榮, 驕慢을 부려서는 안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聖徒가 所有한 물질은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利己的 個人主

228) 주석, 마14:16.

229) 각자가 맡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정도.

230) 주석, 고후8:14.

231) 포식할 정도도 아니며 그렇다고 가난할 정도도 아닌 상태.

232) 주석, 고후8:13.

233) 주석, 살전4:6, 그 기준을 물질 하나에만 둘 때 가난을 생각하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義가 아닌 공유의 윤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부의 상호교통 제도는 예배에서 드러지는 獻金에 의해 잘 표현되고 있다. 물질적인 헌금에 대해 인간은 그의 모든 물질과 더불어 그가 신에게 속함을 인정하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獻金의 척도에 대해 칼벵은 本質적으로 각자 個人의 내적인 의향에 속하는 것이며 외부의 강요에 의한 것은 있을 수 없고 사랑의 規律에 의해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 자신이 부름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恩惠를 베풀 수 있는 신자에게만이 주어진 祝福이다.

헌금의 참된 의미는 구세주에게 봉사하고 이웃을 돕는데 전 생애를 봉헌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 일을 구체화하기 위해 집사제도가 세워졌으며 敎會가 물질에 대해 직무를 바르게 수행키 위해 칼벵은 제네바에서 집사제도를 만들었다.

② 經濟에 있어 政府의 役割

칼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敎會안에서 물질의 기능이 재정립된 것 같이 국가는 인간들이 의식주에 있어 안정된 生活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며 사유재산이 보장되도록 監督해야 하고 치안 유지와 교역과 부의 이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監督할 사명이 있다고 했다.²³⁴⁾

政府는 건전한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衡량 단위, 도량 단위, 화폐 주조 등을 간섭해야 한다.²³⁵⁾ 칼벵은 국가가 매점매석하는 行爲를 막아야 하며 사적인 所有權을 保護해야 한다고 했다. 칼벵은 社會의 공공복리를 구하는 實用主義者이다. 社會에서 人間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善이고 生存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악으로 규정했으며 사치하는 것을 금하여 제네바 시민의 건전한 소비 文化를 유도 하였다. 지금을 생각하면 지나친 간섭이 될지 모르나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필요한 법이었다.²³⁶⁾

칼벵은 國家가 國民으로부터 稅金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통치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使用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는데 이는 세금을 “국민의 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정을 저질러 勅령을 하거나 낭비하는 것을 용서 받을 수 없는 잔혹한

234) 기독교강요, IV권 20장 3항.

235) 주석, 신19:14, 15.

236) William c.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pennsylvania. 1983, PP. 269-284.

행위으로써 國民의 부과금과 징세, 다른 종류의 세금들이 공공 복리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²³⁷⁾

3) 勞動(職業)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심은 “활동”²³⁸⁾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勞動이라는 말이다. 이때의 勞動은 즐거운 일 중에 하나이며 노동을 통하여 生命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人間은 일을 하도록 창조된 것이다. 이 일은 계속되었는데 다만 하나님의 目的으로부터 분리된 人間은 墮落 후 벌을 받아 노동에 고통과 염려, 즉 땀을 흘려야 하며 없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함께 거둬야 했다.²³⁹⁾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타인에게 구걸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수고의 떡, 즉 정직한 노동(nonest labour)으로 생활하게 한 것이다.²⁴⁰⁾ 나태하고 게으른 행동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²⁴¹⁾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일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며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도²⁴²⁾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도 인류의 보전(the preservation of mankind)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²⁴³⁾

人間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職業을 선택해야 한다. 職業은 성경에서 생활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말한다. 직업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邪惡함을 정당화시키지 못하며 남용할 수 없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²⁴⁴⁾

하나님이 직업을 정해주신 目的은 자신을 규모있게 다스려 나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정해진 職業에 대해 족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職業에 마음을 써서는 안된다. 그래서 혼란이 야기 되는 것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²⁴⁵⁾

237) 기독교강요, IV권 20장 13항.

238) 주석, 창3:17.

239) 상계서, 창3:17-19 ; 5:29.

240) 상계서, 엡4:27.

241) 상계서, 살후3:10.

242) 상계서, 엡4:28.

243) 상계서, 사3:4.

244) 주석, 고전7:20.

사람들은 自身の 職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래됨을 認識하여 責任感을 깨닫고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人間을 노동하도록 創造했으므로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不順從하는 것을 의미한다.

칼벵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손에 福을 주시고 게으른 자의 행동과 무기력을 저주하셨으며 이런 사람에게 빵을 줌으로써 無氣力을 조장하는 것으로 음식을 먹게 하는 것도 금했다.²⁴⁶⁾ 이처럼 칼벵은 共同體의 利益에 奉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으름을 비판했으며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人間이라 공격했다.

칼벵은 당시 수도원에 있는 자들에 대해 노동의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먹을 것을 축내는 “돼지들”이라고 비난했다.²⁴⁷⁾

칼벵은 게으름보다 勞動을 착취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도 인간은 노동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표현하며 人間다워진다고 가르치면서 失業은 “사회악”이라 했다.

칼벵은 당시 제네바에 피난민이 밀려 들어와 人口가 두 배로 늘어나 가난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각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방직산업을 구빈원에서 시작했다.²⁴⁸⁾ 또한 印刷術을 발달 시켰다. 피난민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박해가 심해지자 연장만을 든 기술자들이 제네바로 모여들었으니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연장이었다.²⁴⁹⁾ 이 연장을 빼앗는다는 것은 生命을 취하는 것으로 모세는 “땃돌을 전당품으로 잡는 것은 生命을 전당물로 잡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칼벵은 다음과 같이 宣布했는데 “가난한 자들이 생계를 꾸려가는 것(연장)에 대해 저당물로 삼는 것을 금했다. 이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빵을 빼앗는 행위이며 그 자체는 생을 포기한 行爲와 같다”고 했다.²⁵⁰⁾

4) 賃金

245) 기독교강요, IV권 10장 6항.

246) 주석, 살후3:10.

247) 상계서, 막10:21, 마19:20.

248) 설교, 신24:1-6.

249) 주석, 겔18:7.

250) 상계서, 신24:6.

칼벡은 노동을 함으로 賃金を 받게 되는데 이를 당연한 몫으로 생각하는 것을 부정했다. 人間이 하나님으로부터 수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권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다만 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행위에 報答해 주신 것이라 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하시는 것은 自身の 무상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리 행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따라서 賃金은 신성한 것이다.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의 표현이다. 賃金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임의로(마음대로) 약탈해서는 안된다.

고용된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賃金を 주지않고 지불을 다음으로 미루는 행위는²⁵¹⁾ 그의 生命을 剝奪하는 行爲이다. 가난한 자들의 勞動에 있어 최저임금보장제나 최저생계 보장임금제를 칼벡은 비중을 크게 두었다.²⁵²⁾

賃金은 雇用主에게 속한 것도 일꾼에게 속한 것도 아니다. 雇用主나 일꾼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받아야 하며 이것이 정당한 賃金を 결정하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런 賃金의 靈的인 성격을 바로 인식할 때 정당한 결정이 행해질 것이다.²⁵³⁾

칼벡은 勞動은 투기의 상품이 될 수 없으며 비폭력 저항과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雇用主가 품군의 노동에 댓가를 착복하는 행위를 야만행위로 정죄하며 다음 날로 미루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²⁵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²⁵⁵⁾

賃金を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에 칼벡은 賃金協商을 제시하여 시의회가 중재하여 양자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요구했다. 그것은 각자 문제로 자신들의 의견을 辯護할 때 자기사랑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²⁵⁶⁾

5) 高利貸金業과 私有財産

251) 주석, 레19:11, 13.

252) 상계서, 신24:14, 15.

253) 설교, 신15:11-23.

254) 주석, 신24:15.

255) 주석, 약5:4.

256) 상계서, 창29:14.

所有는 自身の 努力이나 우연한 기회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각 자에게 적절히 분배하셨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한다.257)

債權者는 債務者가 자발적으로 형편에 따라 내놓기 전에는 그의 집에서 아무 것도 꺼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258)

만일 가난한 자가 生必需品을 담보로 잡혔을 때 채권자가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의롭게 여겨 주신다.259)

이자놀이(高利貸金)에 대해 필요한 만큼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이는 구분없이 정리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향하든 罪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낙심한 나머지 담력을 얻어 선택이나 구분없이 행해질 것이며 合法的인 것이 된다면 사람들은 이자놀이를 실시할 때 재량권이 자신들에게 許容된 것으로 생각하여 자행할 것이기 때문이다.260)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은 교회 역사를 통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문제에 대해 예수님은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며 세상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요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말씀하셨으나 高利貸金業에 대한 말씀은 없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는 강요받은 이식 뿐만 아니라 대부로 얻은 모든 수입과 관련하여 많은 말씀261)이 있다. 이에 칼벵은 高利貸金業을 피를 빠는 일로 규정했다.26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강도나 다름없다고 했다.

高利貸金은 형제를 압제할 경향이 있으므로 이 같은 기억이 소멸되고 망각되기를 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어 양쪽으로 공평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지독한 高利貸金業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직업에 시달리기까지 하며 기술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상인들은 스스로에

257) 기독교강요, II권 8장 45항. 주석, 시127:2, 고후9:10, 신8:16-18.

258) 주석, 신24:10.

259) 주석, 신24:10.

260) 상계서, 시15:5.

261) 상계서, 출22:25, 레25:35-37, 신23:19,20, 잠28:8, 겔22:12, 느5:1-13, 시15:5, 시109:7.

262) 상계서, 겔18:8.

게 수고를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불편과 위험까지 감수하는데 이 고리대금업자들만은 아무 일도 하지않고 편히 앉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수고에서 조공을 받는 것은 이상하고도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자놀이 때문에 고역을 치르는 쪽은 부자가 아니라 마땅히 구제 받아야 할 가련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리대금업을 금하시면서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라”²⁶³⁾는 이유를 덧붙이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칼벡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²⁶⁴⁾는 그리스도께서 규정하신 공평의 법칙만 마음에 새겨두고 있다면 이자놀이에 대해 긍정적이었다.²⁶⁵⁾

돈을 빌리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율법에 해당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언제나 관찰해야 한다. 인간 사회는 서로 선한 일을 주고 받기 전에는 제대로 지탱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서 도둑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관용은 의에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아니한 고리대금업자는 거머리처럼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나 다름없다고 칼벡은 강조했다.²⁶⁶⁾

칼벡은 채무자가 거짓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지연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보고 불편을 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는 마땅히 손해에 대해 보상으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같이 공평을 기하는 한(as far as equity is concerned) 이자놀이가 나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 것은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해당되며 부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자놀이가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²⁶⁷⁾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equity)과 형제적 연합(brotherly union)에 위배되지 않는한

263) 성경, 레25:35, 36.

264) 성경, 마7:12.

265) 주석, 시15:5.

266) 상계서, 출22:25.

267) 상계서, 출22:15, 겔18:8, 시15:5.

불법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이자놀이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칼벵은 말한다. 고리대금업은 황금률만이 정확무오한 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했다. 원금에 어느정도 이자를 받아야 합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평의 법칙이 훌륭한 처방을 내릴 것으로 말했다.

또한 돈이 금고에서 쓸모없이 잠자고 있으므로 얻을 것을 얻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익이 그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이용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에 있다. 마치 집세로 나오는 수입, 장사에서 얻은 수입, 농장을 세 주는 것과 같은 합법적인 방법의 경우를 칼벵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칼벵은 신명기 23장 10절과 20절에서 분명히 밝힌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성경 속의 법은 정치적이며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랑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 고리대금업을 금지한 곳은 없으나 사랑의 규칙에 비추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칼벵은 중세의 혼란을 잘 극복했는데 토지에 의존하던 자연 경제에서 상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경제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새롭게 변한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칼벵은 생계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빌린 돈을 이용하여 이득을 남기는 경우 産業貸代를 구별했다. 이런 변천을 통하여 유럽은 새로운 근대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

6) 富의 增殖과 消費文化

부를 증식하는데는 구매, 상속, 선물 등에 의해 소유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능력(노력)에 의해 재산을 늘려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²⁶⁸⁾

남을 해치면서 부자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온갖 損害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²⁶⁹⁾ 기만이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어진 재물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며 그 재물로 인해 저주를

268) 주석, 출16:17. 노동.

269) 상계서, 겔18:16, 사33:15.

받게 되어 함께 패망할 것이다.²⁷⁰⁾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남이 손해 보는데서 이득을 찾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자신의 이익에만 전념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 계명이다.²⁷¹⁾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아 자족하며 매사에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웃의 재산에 눈을 돌려 치부하지 않으며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들의 피를 뽑는 행위를 금하며 貪慾으로 만족하거나 방탕생활로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²⁷²⁾ 더 나아가 자신의 無關心 때문에 이웃이 손해를 보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도둑죄로 적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다.²⁷³⁾

각자는 公平을 기하는 가운데 남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를 증식시켜야 할 것이요 자신의 소득을 경건하고 거룩한 용도에 써야 한다.

自身の 所有로 만족하는 가운데 남에게 짐이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²⁷⁴⁾는 당부를 솔로몬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 聖經의 근거에 의한 칼벱이 말한 공정거래 1조는 아무도 남의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없이 정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만을 사용할 것, 제2조는 아무도 自身の 소유를 소용돌이처럼 끌려 삼켜버리지 않고 자기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풍요로 그들의 궁핍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다.²⁷⁵⁾

7) 가난한 者와 富者의 關係

누구에게든지 포악을 행하면 정죄받아 마땅하며 동정해야 할 자를 괴롭게 한다면 흉악한 非人間的 처사(inhumanity)다.²⁷⁶⁾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수호자요 후원자가 되셔서

270) 상계서, 고후8:15.

271) 기독교강요, IV권 20장 16항에서 칼벱은 도덕적 율법을 자연법의 증거로 본다.

272) 상계서, II권 8장 46항.

273) 주석, 신22:1-3, 출23:4.

274) 성경, 잠5:15.

275) 주석, 살후3:12.

276) 주석, 겔18:10-13,16,17, 사3:14.

277) 땅 위에서는 統治者들에게 위임하여 권리를 보장받게 하신다.

富者들은 억지로 가난한 자처럼 살 必要는 없지만 가난한 자를 돕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가운데 自身の 分數에 맞는 生活을 해야한다. 그리고 兄弟에게 필요한 것을 供給해주고 窮乏을 돌보아 解決해 줄 정도로 公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다.278)

가난은 불편하기는 하나 罪가 될 수 없으며 가난을 자랑할 것은 못되나 가난 때문에 부당이익을 당하거나 他人으로부터 위축을 받을 수 없고 疎外感 같은 自身을 虐待하는 행위는 크게 잘못이다. 가난이 또한 靈的 生活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받아서도 안된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여 이들을 돌아보게 했던 것이다.

財物에 있어서 모으는 것도 重要하지만 모은 것을 管理하고 제대로 使用하는 일은 모은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주어진 재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여 自身을 위해 호사스럽게 生活을 한다든지 쓸 줄도 몰라 수전노처럼 산더미 같이 쌓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에게도 혜택을 주지 못하고 사라지게 한다든지 금고에서 금이 녹슬게 하거나 옷이 썩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며 자신을 망하게 한다. 재물은 人間 生活을 지탱하도록 使用하며 節約하고 儉素하게 살아서 더많은 兄弟들의 公휼을 덜어주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다.279)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의 方式을 배워야 하는데 부자들은 얻은 것을 자신을 위해 모두 삼키지 않고 탐욕스럽게 自身の 배만 채우지 않으며 가난한 자의 굶주림으로 自身을 위하지 않으며 自身에게 임한 하나님의 祝福을 보유하고만 있지 않으며 적절히 잘 使用하여 未來에 지나친 염려없이 지내되 窮乏함에도 참을 줄 알고 자신의 풍부에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되280) 돈을 사랑함이 헤아릴 수 없는 악을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여 信仰 生活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77) 상계서, 약5:4, 사10:2, 출22:23, 신15:9 ; 24:15, 시68:5.

278) 상계서, 겔18:7.

279) 상계서, 약5:2.

280) 상계서, 출16:19.

IV. 結 論

지금까지 칼벵의 倫理 思想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基督教 強要와 주석을 중심으로 그 외에 關聯文獻들을 통해서 研究한 점을 요약하면 當時 時代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人物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人間의 根本問題로부터 시작하여 社會, 經濟, 政治 등 모든 분야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목시켜 실제 生活에 적용시켰다고 하겠다.

먼저 1장에서 칼벵의 生涯와 그의 思想을 살펴 보았는데 칼벵은 노용에서 태어나 자신을 成熟시켜 장성한 그는 제네바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自身の 敎理를 펼쳐 적용시켜 나갔다.

1536년 처음 出版한 「基督教 強要」는 그의 신학적 思考를 一目瞭然하게 정리했으며 이는 하나님, 人間, 社會라고 하는 틀 속에서 짜여졌다.

제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律法)과 人間의 行爲(罪)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律法을 주신 목적이 世上에서는 自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救援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며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自身을 비춰봄으로써 自身の 無能함과 刑罰을 면치 못할 存在임을 깨닫고 自身の 信賴보다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하며, 둘째로는 刑罰의 무서움을 깨닫고 自身の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며, 셋째로는 信者들의 有益을 구하는 것과 여호와의 계명은 신자들을 위로와 격려해 주는 能力이 있으며 진리에 확실히 거하여 生命에 이르게 한데 있다.

계명에는 두가지 義務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무)요, 둘째는 人間에 대한 사랑(義務)로서 둘째 비석의 말씀은 첫째 비석의 기초로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人間 相互間의 生活이 합당한 처사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칼벵은 원리를 정했는데 律法(말씀)속에는 自身과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성결과 道德生活에 必要한 모든 것이 包含되어 있으며 罪人인 人間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받음을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남”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生活原理로서 세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自由로서 이 自由는 律法으로 부터의 自由, 良心의 自由, 外的인 것으로 부터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사랑에 종속되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자유롭게, 良心에 거리낌없이 忠誠·奉仕하며, 이웃과 和睦하고 하나님께 忠誠을 다하여 자원하는 順從을 보이는 것이다. 이 原理로 주님을 닮아 가는데 칼벵은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을 말했다. 이런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十字架를 지는 일, 즉 자신을 끊어버리고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데 죽기까지 낮아지신 順從을 의미하고, 또한 十字架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정을 가르치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十字架를 지는 일이고 十字架를 진다는 것은 자기부정 없이는 안되는 일이다.

제 4장에서는 倫理의 원리에 의한 生活을 살펴 보았는데 創造된 人間은 하나님 안에 하나라는 것이다. 그래서 人間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삶(社會 生活)을 통하여 실천해야 한다. 칼벵은 말하기를 타락한 人間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回復하여 본래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찾았고 일반은총을 認定하여 聖經에 의존한 社會的 관심을 크게 두었다.

家庭倫理에서 보면 夫婦간 사이와 父母와 子女의 關係는 社會의 秩序를 세워 나가는 기초가 되며 이 秩序가 무너지면 2차적 社會가 세워질 수 없고 무질서와 混亂과 腐敗, 墮落이 난무하며 性倫理의 紊亂은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그래서 家族制度는 하나님이 제정하였고 保存하시며 하나님의 주관아래 주셨다. 서로간은 연합체이며 夫婦의 關係에서 中心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으며 父母와 子女와 關係 또한 마찬가지다. 범죄한 人類에게 家庭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의 보금자리로 모든 것의 基礎가 된다.

政治倫理에 있어서는 人間이 犯罪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命令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 이 秩序는 人類를 파멸로부터 保護하며 이 秩序 維持를 위해 이중 통치, 즉 영적통치와 政治的 統治를 말했다. 그러나 政治的 통치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 政治的 統治의 統治權者는 거룩한 직책에 奉仕한다는 차원을 벗어나지 않고 규모있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알고 人間을 사랑할 줄 아는 자에 의한 政治를 말했다.

經濟 倫理에서 勞動은 하나님이 許諾한 “神聖한” 부분이다. 所有와 分配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는 하나님이 모두 지으셨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맡은 청지기

로서 지혜로운 처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은 人間 社會의 保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必要하며 公平의 원칙과 형제간 연합 원칙을 따라야 한다. 말은 재물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使用하며 이웃의 窮乏과 飢餓를 실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칼벵의 倫理는 하나님, 人間, 社會의 관계속에 있으며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 秩序와 福祉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되어지며 하나님의 統治를 떠남은 파멸을 자초하는 것으로 보았다.

칼벵은 하나님의 主權 思想에 두고서 모든 원리를 聖經에서 찾았다. 그는 실로 중세를 마감하고 近代 社會를 도입해 오는 歷史의 과정에서 基督教人들을 비롯한 世上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자기가 믿는 聖經을 통해서 제시하였고 그의 그러한 제시는 西歐의 文化와 文明을 꽃피우게 하는 기초가 되었으며 세계의 精神的 秩序를 維持하는데 至大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겠다.

칼벵은 基督教會에 있어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과 같이 聖經이 말하는 핵심으로 돌아가기를 염원했으며 그러기에 聖經이 말하는 論理를 따라 세상의 理致를 관조할 수 있었으며 확신있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

現代 資本主義 社會의 부정적인 면이 많이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資本主義의 精神的 基礎를 형성한 사람을 들라면 감히 칼벵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그는 우리 시대와도 깊은 聯關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그리했던 것처럼 이제도 混濁한 세상 혼란스런 社會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行動할 수 있는 勇氣와 擔력을 줄 수 있는 위대한 思想家가 있어지기를 바란다.

參 考 文 獻

- 이 태 언, 「칼빈의 개혁사상 연구」, (서울 : 성광문화사), 1992.
- 한국 칼빈주의 연구회 편, 「칼빈총서」 제1권 - 10권, 서울 : 기독교문화사, 1986.
- 존 칼빈(김문제 역), 「기독교 강요」 제 1권 - 4권, 서울 : 세종문화사, 1974.
-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 「칼빈성경주석」 신약 제 1권 - 10권, 구약 제 1권 - 30권,
서울 : 성서교제 간행사.
- 로날드 S. 웰레스(나용화 역),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서울 :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8.
- 로레인 보트너(홍의표 역), 「칼빈주의 예정론」, 서울 : 보문 출판사, 1977.
- 리이드(홍치모 역), 「칼빈과 낙스」, 서울 : 성광문화사, 1991.
- 벤자민 팔리(박희석 역), 「칼빈의 십계명 설교」, 서울 : 성광문화사, 1991.
- 사무엘 던(김득용 역), 「요한 칼빈의 신학진수」, 서울 : 성광문화사, 1992.
- 아브라함 카이퍼(박영남 역), 「칼빈주의」, 서울 : 세종문화사, 1979.
- 앙드레 비엘리(홍치모 역), 「칼빈의 경제윤리」, 서울 : 성광문화사, 1992.
- 존 스타트(박영호 역),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 :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5.
- 존 칼빈(이형기 역), 「칼빈의 경건」,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 토마스 M. 린제이(차종순외 1), 「종교개혁사Ⅱ」,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1.
- 프레드 그래함(김영배 역),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6.
- 헨리 반틸(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 서울 : 성암사, 1987.
- 후스토 L. 곤잘레스(이형기외 1), 「기독교 사상사Ⅲ」, 서울 :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3.
- 곽 우 송, “칼빈의 사회관 : 기독교 강요와 주석을 중심”, 신학석사학위논문, 아세아 연합
신학원 1987.
- 김 광 수, “칼빈의 경제윤리 연구 : 빈부론 중심”,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신학

대학원, 1991.

김 광 식, “칼빈의 윤리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1991.

김 영 규, “칼빈에 있어서 오직 성경”, 신학석사학위논문, 합동신학교, 1993.

명 신 홍, “칼빈의 윤리 사상”, 「신학지남」, 제 29권 2,3,4집, 1962.

박 영 신, “칼빈의 신앙론”, 신학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신학대학원, 1986.

신 복 윤, “기독교 강요 : 역사, 저작목적, 사상배경”, 「신학지남」 제 44권 2,3,4집, 1971.

신 복 윤, “칼빈의 국가관”, 「신학지남」, 제 40권 2집, 1970.

신 복 윤, “칼빈의 윤리관”, 「신학지남」, 제 36권 3집, 1969.

여 현 구, “칼빈의 국가관”, 신학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1991.

이 은 선, “칼빈의 사회경제 사상”,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신학대학원, 1989.

정 병 업, “요한 칼빈의 실천적 목회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1984.

조 대 현, “루터와 칼빈의 정치윤리 비교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1992.

H.G. Stoker, Calvin and Ethics in John Calvin : Contemporary prophet, edited by Jacob T. Hooqstra, 1965.

2. T.H.L. Parker, portrait of Calvin, the westminster press, 1940.

ABSTRACT

A study on the Ethical Thought of Calvin

by : LIM YOUNG-KEUN

Advisor : Prof. Jun Jung-Tai

Major in National Ethic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society we live in is in chaos as the late industrial society has begun.

The situation of the time Calvin lived in the 16th century was the same as ours and the man has been in a series of uneasiness, losing their reliability in daily life and their mental prop. Calvin is the man who suggested a new way to collapsing society for such a world on the basis of the Bible.

This study examines therefore the ethical thought of Calvin systematically and investigates what his rationale of his judgement whether what is right or wrong was applied to our life, how the man can be recognized by God and how to live as the christian in the relations with neighbors.

Calvin applies the doctrine based on the words of God in Geneva and his theological thought is arranged in 'the Elements of Christianity' in detail.

The purpose God gives us rules is to make us liberate and obtain the relief in Christ. In addition it is to make us realize the fear of punishment, reach the true devotion and give an ability of consolation and encouragement for others.

The words of God contain everything needed for holiness and purity to ourselves, neighbors and God and moral life. The Bible instructs that the sinner is reborn as the righteous

man, serves God with his conscience, loyalty and service within the love of God, dwells in harmony with neighbors and obeys God, and then he obtains righteousness and devotion.

Christ orders us to bare the cross for this life and it instructs the obedience, a necessary element to follow 'the way of Christ'.

Calvin argues that the man must apply God's love of the man within God to the social life with the principle of ethics. It is to recover the shape of God damaged by the corruption of the man, to make the man enjoy their original life, that is, beautiful life within the sovereignty of God and has a great interest in the problems in society by recognizing the general favors of God.

To consider the domestic ethics, the home is established and preserved by God and it is under the sovereignty of God and is the basis of social order. So, if the order is corrupted, the secondary society cannot be established and disorder, chaos, corruption and depravity are rampant in the world. The home is the foundation of social order as the nest serving the Christ in the unity of monogamy system.

To consider the political ethics, God entrusts the ruler with the authority to protect the mankind from the destruction and keep the order and the ruler wishes that he acts sincerely as the worker for the holy task and establishes the politics which fear the God and loves the man.

In the economic ethics, God teaches labor is holy and explains that all the man must accomplish God's will as the steward, behave themselves in wisdom to preserve human society and use the propert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quity and that of union among brothers.

Like these, Calvin views the ethics in the relations to God, man and society and considers that to depart the rule of God is to bring destruction on themselves.

He finds out all principles of the ethics in the Bible, emphasizes the sovereignty of God and suggests the reason why the man lives in God through the Bible. In addition, he implants his own thought in such a view of ethics, makes the footstone that can bloom the western

culture and gives a great influence on the maintenance of mental order of the world.

The religio, the last mental fort in the modern society, recovers the humanity collapsing, accumulates the trust among the man and makes the society that one can depend on, love and respect one another. Therefore, we must practice our own duty as the man voluntarily.